기도 걱정꾼들

(Prayer Worriers)

박진호 지음

차 례

들어가면서 1

1 마 6:9-13 스파게티도 못 먹는 신자 7

2 마 6:9 돼지도 웃는 돼지의 자살 16

3 마 6:9 데이트 중에 가버린 여자 26

4 마 6:9 어중이 떠중이 같은 패거리 신자들 37

5 마 6:9 세상에서 최고로 시원한 사이다 46

6 마 6:9 하나님 제발 힘 좀 내세요! 56

7 마 6:9 자동 응답기를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 67

8 마 6:10 정신병원에서 왕 노릇 하는 신자 78

9 마 6:10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88

10 마 6:10 천사들을 실컷 부려 먹으라 99

11 마 6:11 카터 대통령의 별난 식사기도 109

12 마 6:12 용서는 해도 절대 잊지는 못해 119

13 마 6:13 욕심을 채우며 살아라 129

14 마 6:13 김정일이 예수를 믿었다면? 139

15 마 6:13 기도 걱정 꾼들(Prayer Worriers) 149

16 마 6:14,15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159

들어가면서

기독교에는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이 이미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배우고 믿었기에 구원도 당연히 확보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체험을 실제로 겪는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거듭남의 구체적 과정은 제대로 인식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간섭한 후에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은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 뿐 아니라, 죽었으면 죽었지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마음이 추호도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불신자 시절에는 예수가 주는 것 없이 무조건 싫다가 어느 순간엔가 그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좋아집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본보인 삶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생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사단에 묶여 있던 신자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풀려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선 구원이 미래의 천국에서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 그 현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맞바꿈으로 확보된지라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당연히 기독교의 기도도 여타 종교의 기도와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영적이고 의로운 기도를 먼저 많이 하고 육적이고 현실적 소원은 나중에 조금만 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순서나 초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린 결론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4) 이방인이나 신자나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장래를 염려하기 때문인데 신자의 장래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당신 백성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인도 아래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품안에서 절대 내쳐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격도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면 당신만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며, 또 그 계획이 이뤄질 때까지는 당신께서 책임져주셔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또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신자더러 세상 앞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서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아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절대 못 이루실 리 없다는 확신의 바탕에서 말입니다.

******

그러나 우리 기도의 솔직한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선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상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맨 앞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마침 말을 붙이는 것 말고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기독교적 용어를 섞어 넣기도 하지만 실제 간구하는 내용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선 응답이 안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엄포(?)도 신경이 쓰입니다. 간구하는 질과 양을 조금 검소하게 낮춥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답시고 교회 일을 위해 잠시 기도한 후에 자기 구할 것을 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친절하신(?) 지적대로 구하는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저 어쩌다 응답해주시면 감사히 받겠다는 투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것 같지만 이제는 자신의 믿음에도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한대로 다 받을 줄 미리부터 믿고 무작정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도 꽤 많습니다. 뜨겁고도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젠 자신의 기도하는 열성과 끝까지 믿어보려는 의지력을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에 자신감을 잃은 신자나, 그 반대로 너무 맹신하는 신자나 믿음으로 확보하려는 궁극적 대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에만 과민하게 신경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기독교다운 즉, 당신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라는 깊은 뜻은 모릅니다. 응답 빼고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恩賜)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1,32, 38,39)

성경은 분명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에 기독교 신자도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말 더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망, 장래 일, 깊음 등 세상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신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어떤 깊음에 빠져 있어도, 장래 어떤 일이 닥쳐도, 심지어 사망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신자라도 그런 어려움은 당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구해야 할 대상은 그런 일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서 신자답게 바로 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에 다른 것 즉,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사망을 막아서고, 장래 일을 미리 보여주며, 깊음에서 건져 올려주어 당신의 사랑을 다시 더 크고도 화려하게 나타내 보이라고만 요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걸고서 그 사랑을 벌써 오래 전에 절대적으로 보증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혼인신고까지 마친 아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남편보고 결혼한 사실을 믿을 수 없으니 뭔가 확실한 증표를 보여 달라는 꼴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다이아 반지보다 캐럿이 더 큰 반지를 건수만 생기면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

이방인의 기도가 기독교의 그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들이 비는 대상과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빌고 또 빕니다. 또 그 비는 정성과 열심에 비례해서 응답된다고 여깁니다. 둘째, 자기들 신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비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르니까 그 대상이 품고 있는 뜻은 모르는 게, 아니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그들보다 확실히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에선 어떠합니까? 스스로 고안 내지 계획해 놓은 여러 대체 방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방안들이라고 해야 기독교적 색깔과 무늬로 덧칠했다 뿐이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면서 말입니다.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풍성하고도 권능이 넘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짜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자신감과 당당함이 사라져 의무처럼 되었거나, 자기가 정한 대체 방안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떼를 쓰서라도 기어이 이루어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

반면에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갖 의심, 불평, 심지어 불신과 분노를 토설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에 대한 감사, 경외,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우는 얼굴로 들어갔다가 마치고 나올 때는 웃는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여건이 개선된 것 하나 없어도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구한 내용은, 최소한 구하지는 않았다 해도 응답 받은 내용만은 자기 대체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응답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기도 중에 그들에게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지 않는가? 거기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만큼 부질없는 짓이 어디 있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그들이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로, 안전, 만족, 능력, 평강, 자유를 오직 그분에게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또 그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자의 신자다움도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후로 하나님이 전혀 변함이 없기에 신자도 신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바로 선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만으로 내일 일을 염려치 않게 된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존의 종교와 도덕적,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이방인적 색채를 깨끗이 탈색해 내고, 바리새적인 율법과

종교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당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자신의 열성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당신이 하나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가르치신 기도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까닭도 하나님 독생자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겐 뜨겁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구원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은혜와 권능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큰 용사(Pray Warrior)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불신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면 최소한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걱정하는 자(Pray Worrier)는 안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자신이 없어서 맥이 빠졌거나, 거꾸로 울부짖듯이 뜨겁게만 기도하는 것 둘 다 솔직히 내면의 염려를 기도라는 종교행위로 감추거나 줄여보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응답 받는 기도는 더더욱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가르쳤는지 함께 탐구하는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합시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해도 이 책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차원에서 기도를 접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파게티도 못 먹는 신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9-13)

한 택시 기사의 기도

택시회사의 경건한 신자 사장이 회사 내에 신우회(信友會)를 조직해서 아침마다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 일과를 시작했다. 하루는 어떤 기사더러 대표 기도하라고 시켰다. 오늘도 무사고로 지켜 주시고 회사가 발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해 놓고는 끝날 때쯤 되었는데도 한참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 끝"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한다.

아마 그 기사는 교회 생활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단지 사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그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척 당황 되었지만 웃을 수도 없고, 당장 그 잘못을 지적해주려니 본인이 무안할까 그럴 수도 없어 난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쉽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는 그 엄청난 의미와 권세와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 "아멘"의 뜻이라도 제대로 알고 기도할까? 만약 무조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거나,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택시기사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의미도 모르니까 말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대예배를 포함하여 공식 비공식 모임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칠 때가 많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줄줄 외우기만 한다면

그 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주기도문을 “이상 끝” 식으로 암송하지 않기 위해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흔히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적 패턴을 제시해 가르쳤기에 신자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한 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평강을 구한 후에, 찬양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내용 전부가 들어가야 하고 순서마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 나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오래도록 응답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회개를 빠트렸나,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나 싶어 일부러 있는 죄 없는 죄 찾아서 아주 작은 죄라도 과장해서 회개하고픈 마음이 간혹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도란 일단 해야 한다. 무조건 무릎부터 꿇고 봐야 한다.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 어떤 상황 하에서든, 어떤 형태로나 기도만 하면 된다. 심지어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갖고 나와도 된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와야 하므로 더럽고 추한 것은 더더욱 털어 놓아야 한다. 나와 똑 같은 죄인이라 해결책을 얻기는커녕 온전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동료 인간에게 털어 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토설(吐泄)해 내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러는 것이 불경스럽게 여겨지는가? 목소리를 깔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이 구절을 그대로 따라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라면 못 아뢸 것 하나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듯이, 또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알지만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이듯이 그런 자격과 신분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지금 바로 아버지한테 아뢴다는 태도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단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서 말이다.

스파게티도 못 먹는 아이들

오래 전에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스파게티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스파게티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다 고기 볶은 것은 제쳐 두고 면만 골라 먹었다. 애처롭게도 너무 가난하게 자라 스파게티는커녕 고기도 별로 먹어 본 적이 없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기도 고기를 먹어 본 자가 잘 먹는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를 해 본 사람이 잘 한다. 자꾸 하다 보니 떨리지 않고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입에서 줄줄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은 주문(呪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본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풍성한지를 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그 사랑과 능력이 너무나 귀해 자꾸 맛보고 싶어진다.

역으로 고기를 먹어 보지 못한 자는 그 아이들처럼 어지간히 맛있는 고기를 줘도 못 먹는다. 하나님을 일대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고기는 먹지 않고 겨우 면만 먹듯이 그저 생활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신앙생활이 항상 무미건조하고 메마르다. 더 큰 은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상상도 못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것이 그 은혜가 부족해 쉽게 공복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약속하셨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수록 날마다 새롭게 주를 찾게 된다. 아주 미세한 일에서부터 전 우주의 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매일 매 순간 절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연에 그저 푹 잠기길 원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위로와 능력이 더 이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기도는 신자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준다.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가장 편한 길이다.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이다. 먼 장래까지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대비책이다.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위로요 능력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해결책을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기도에 중독되어라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고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신자는 기도에 중독이 되어야 한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슨 수를 써도 해야 한다. 다른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한다. 마누라 결혼반지를 팔거나 집문서를 잡혀서라도 히로뽕을 맞아야 한다. 대신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다른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해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고 그 시간만은 어떤 다른 일로도 방해 받지 말라는 것이다. 도저히 바빠서 그것마저 할 시간이 없다면 일하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재미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이 뒤틀려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인격과 영혼이 좀이 들고 녹이 슬어 썩어져 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의 궁핍함과 갈급함이 끊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은 데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 아직 스파게티도 먹어 보지 못했거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도 정작 먹어야 할 맛있는 양념과 고기를 버리고 매번 먹던 면만 먹는 것과 같다.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자가 찾아 먹을 것의 전부인양 한다면 얼마나 가난한 신앙인가? 스스로 맛있어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안 죽기 위해 삼시 세끼 그저 맨 밥으로 때우는 것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

기도의 중독은 세상 쾌락의 중독과는 다르다.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경우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이 이겨내지 못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법은 그 어느 경우에도 없다. 신자가 마음 문을 열고 항복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에 중독되지 않는다. 정승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기도의 그 풍성한 은혜도 본인이 스스로 기꺼이 기도하지 않고선 그 맛을 조금치도 알 수 없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할 고정적 패턴이 없다는 뜻이다. 회개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서를 빠트렸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훨씬 다른 데에 있다.

그럼에도 신자가 기도하면서 항상 갖는 불만과 의심은 “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경배하는 순서를 빠트리지 않으려 애를 쓴다. 기도 잘 하는 법,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 같은 책을 구해 읽고 따라 한다. 기도하면서도 도무지 응답에 자신이 없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역으로 따져 이방인이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을 찾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다. 무엇이 다른가? 기도의 끝이 다르다. “이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선 부처님이나 알라신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8:31,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그 분의 사랑만이 우리 기도의 응답 근거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치성과 열심을 동원해 중언부언 기도하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기도가 쑥스러워 간단하게 하고 끝내든, 회개를 간절히 했든 미처 감사를 잊고 빠뜨렸든, 어떤 특정한 기도의 패턴대로 하든 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 하는가, 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가, 인격이 고상하고 구제를 많이 했든, 봉사와 헌금과 전도를 열심히 하든, 나아가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조차도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알고 너를 택하여 내 아들의 피로 씻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말고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으므로, 예수를 믿어 보기로 결심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한량없는 사랑에 항복했기에 그 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정말로 그런 초신자가 단지 기독교 기도의 종결 문구를 몰랐기에 “이상 끝”하고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신다. 당신의 마음이 터져 나갈듯 기쁘고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기본 원리는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의 우리 된 존재, 삶, 인격, 내면의 실제 모습을 되돌아 볼 때에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도 요구할만한 근거가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잘 아니까 완전히 속을 까뒤집어 본다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을까?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라는 고백이 없다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는 내가 신자가 될 수 없었다는 진정한 항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치 못하고 그분의 나라 밖에 있었을 것 아닌가? 성령이 없는 인간에겐 기도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란 넋두리 신세 한탄일 뿐이다.

그런데도 신자는 아직도 자꾸만 기도 응답의 근거를 내 쪽에서 찾으려 하니까 응답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기껏 의무적,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쥐 꼬리만한 헌금을 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응답만 재촉한다. 우리 기도의 응답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뿐이다.

주님을 아는가? 사랑하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시91:14)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허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본문의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도 어떤 절대자를 붙들고 중언부언일지라도 기도한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일대일로 대면하여 나에게 직접 질문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 분이 당신을 모태에 잉태하기 전부터 택하시고 지으시고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 분이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으며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무한하신 인내로 참으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서 그 분의 영으로 당신의 영혼이 씻기고 옛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는가? 그래서 이제는 그 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당신을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켜 주실 것을 믿는가?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분만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 평생의 출입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는가?

이 질문으로 끝이 아니다. 당신이 그 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분이 당신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의 이름을 그 분의 손바닥에 새긴바 되었고 침 삼키는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머리카락의 수효까지도 세신 바 되신 것을 믿는가? 당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지금은 비록 후패하고 여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분의 거룩과 의로 덧입혀져 신령한 존재로 변화 되어질 것을 믿는가? 당신의 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그 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초석으로 쓰임 받으리라 확신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속으로 확실하게 아멘 했는가? 단 한 개의 질문에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줄일 만큼 줄여서 핵심 되는 것만 질문 한 것인데도 그 전부에 아멘이 힘차게 나오지 않는다면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실망은 하지 말라. 그 전부를 분명하게 'No"하지 않았다면 신자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신자이며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당신을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단지 솔직히 우리가 겨우 그 정도인데 과연 우리 쪽에서 무슨 기도 응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다.

눈물로 기도를 마쳐라

주기도문이 단순하게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그쳐선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범 답안의 기도는 따로 없다. 주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하신다. 또 그런 자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숫자를 세지 않고 오직 깊이와 무게만 재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문은 따로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마음은 따로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는 마음이다. 주기도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오직 그 마음이 있는가만 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기도할 때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 모습이라도 관념하지 않으신다. 설사 시험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신자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이유다.

우리가 설령 기도할 때에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서를 빠트렸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신자의 모든 기도를 하나 흘리지 않고 다 받으신다. 의심과 불만이 들어가 있어도 받으신다. 심지어 교회를 십년을 다녀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급한 사정만 쉴 새 없이 울부짖고 나오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또 재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 개의치 않으신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면 말이다.

진정으로 기도한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는 그 마침만으로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다. 그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 본 자는 기도의 권세를 알았고, 찾았고, 누렸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 중독자로 변해 간다.

주기도문이 기독교인들의 예배나 모임을 거룩하고도 엄숙하게 마치게 하는 장식품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한절 한절을 기도할 때 마다 가슴 속에서 감격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한다. 세상에선 도저히 맛 볼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넘쳐야 한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가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천지를 지으신 그 분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더 좋고 유익한 것으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 아닌가? 도대체 세상과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신자의 기도의 진짜 마침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신자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다. 슬프거나 힘든 일이 끝이 나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세밀하고 풍성하여 뿌리는 감사의 눈물이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고 염려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주신 하나님이 당신만의 영광으로 이끌 것을 확신하기에 흘리는 눈물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126:5) 아멘! (또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돼지도 웃는 돼지의 자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바뀌어 버린 애국가 가사

학교 후배 한 사람이 몇 주 전 한국의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직에 응시했다. 기독교 대학인지라 성경적 시각으로 접근한 전공과목에 관한 에세이를 써내야 했다. 일종의 신앙고백서이자 자기 전공을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가르칠 것인가를 보려는 목적이었다. 그 수필을 제출하기 전에 혹시 성경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까 봐 목사에게 감수를 받아야겠다고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내용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딱 하나를 고치지 않으면 서류심사부터 탈락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분이 신앙이 있고 교회도 성실하게 출석하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에세이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표기해 놓았다. 아무리 최종 수정을 그치지 않은 초안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이라고 적은 것은 아직도 그 호칭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탓일 것이다.

간혹 신자들 중에 기독교에서 믿는 절대자의 이름이 '하나님'과 '하느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왜 꼭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가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난에 들어가 보니 영어로는 "God watch over our land forever"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차피 영어로는 God으로 번역되는 같은 신(神)인데 한글 모음 하나만 다른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더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느님도 맞는 것인지?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타 종교에서 부르듯이 하느님이라고 쓰면 되는데 구태여 개신교만 하나님이라고 고집해 배타적이니, 완고하니, 교만이니 욕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눈물 흘리는 암소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우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만 계시는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다 계시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것인가? 셋 다 맞다. 여기서 셋 다 맞다는 것은 답이 셋 있는데 셋 중 하나만 적어도 정답인 것이 아니라 셋을 다 써야만 정답이 된다는 뜻이다.

이 셋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하늘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超越性)을 의미한다. 어디든지 다 계신 것은 편재성(遍在性) 이다. 이때의 '편'은 내 편 네 편을 나누어 한 쪽에 치우친다는 뜻의 '편(偏)'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뜻의 '두루 - 편(遍)'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내재성(內在性)이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장소적 개념을 논할 때는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적용된다.

다시 한 번 질문 해 보자. 그럼 이 세 속성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방금 셋 다 써야만 정답이라고 해 놓고 왜 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가? 셋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은 하나님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가를 따져 보자는 것으로 신자에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후배처럼 어디 가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접근해 보자. 돌, 물, 공기 같은 것은 무생물로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 산소, 수소 같은 원자가 모인 결정체일 뿐이다. 분자구조만 있고 생명은 없어 물질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동물, 식물은 생물이다. 살아있는 물체로 분자구조에 생명이 플러스 된 것이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몇 천 년 전의 밀알 씨앗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다. 우주 만물을 화학적 분자구조만으로는 절대 분석이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는 엄청난 것이다. 인간의 이해나 접근을 감히 허용하지 않는다.

근래에 인간들이 복제 양,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지만, 무엇과 같은가 하면 감이나

사과나무 같은 과일 나무를 접붙여 새 품종을 개발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가지 안에 흐르는 생명의 씨앗을 인간이 심어줄 수 없다. 이미 생명이 내포되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와 다른 가지로 만들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가지 자체를 만들 수는 절대 없다.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조차 생명을 만들 수 없는데 아무 지성이 없거나 인간보다 낮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어떤 분자구조 결정체 안에서 우연히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생명이 진화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데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진화의 여러 모순을 알고도 또 실제 솔직한 속내로는 진화를 완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우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그런데 관심이 없는 척하거나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이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보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롬2:5)를 자기들 머리에 스스로 쌓고 있는 자들이다.

인간은 무생물, 생물과도 다른 존재다. 물질과 생명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흔히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지정의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꼽는데 동물도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둘 다 갖고 있다. 돌고래의 아이큐가 120정도 된다고 한다. 어지간한 인간보다 높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가 울며 들어간다고 한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적군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탈취해 갔다.(삼상6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벌로 블레셋 경내에 독종이 번지게 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독종이 아무래도 언약궤 때문인 것 같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했다.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젖 나는 암소로 몰게 했다. 젖 나는 암소란 방금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그 새끼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의지와 떨어지면 울 수 있는 감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 수레를 몰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똑 바로 가면 소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선 어떤 힘이 언약궤로부터 작용한 것이기에 그 독종은 여호와 때문이라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결과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삼상6: 12)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돼지도 웃는 돼지의 자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영혼이다.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기사가 나온다. 쫓겨 나온 귀신들이 마침 근처에 있는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돼지들이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 몰살한다.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 왜 돼지가 자살하는가? 동물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미가 사자 같은 맹수에게 덤벼들다 죽는 경우 빼고는 아무리 위급해도 살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법은 없다. 돼지가 자살했다는 것은 돼지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동물은 귀신을 수용하지 못한다. 갑자기 이상한 영적인 파워가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지능이 가장 낮은 돼지의 지정의가 뒤죽박죽이 되 버린 것이다. 정신이 빠지고 완전히 미쳐버려 떼를 지어 우왕좌왕하다 물에 뛰어들어 몰살한 것이다.

창세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한 것은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미 생겨져 있는 뱀에 귀신이 들어가 붙었다는 뜻은 아니다. 혹시 붙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동물이 자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동물에게는 영(靈)이 들어가 자리 잡을 영역이 그 내면에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가 성경에 있는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다.(민22:22-35) 이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흔히들 고양이를 두고 영물(靈物) 이라고 말하지만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다기보다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 말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은 영적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붙는다는 뜻이다.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려고 노리는 유일한 대상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마귀가 두루 다닌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루’ 계신(遍在) 것과 같이 마귀도 ‘두루’ 다니고 있다. 그 마귀를 우는 사자로 묘사했다. 사자는 가장 힘 센 동물이다. 사자를 이길 동물은 하나도 없다. 그 사자가 울고 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겠는가?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 들어붙어서 마음대로 갖고 놀려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주로 어떤 자를

찾아다니는가? 바로 돼지 같은 자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기 바쁜 사람이다. 오직 그것만 삶의 목표로 삼은 자다. 머리속에 더럽고 추한 탐욕으로 가득 차있는 자들이 마귀의 먹이 감이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초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물질은 스스로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생명은 물질 속에 들어 갈 수 있다. 나아가 돼지 같은 동물 쪽에서 영혼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말해 어떤 물질도 영계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물질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인 육신은 썩어 이 땅에 남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부활 때의 신령한 육체를 덧입는 문제와는 별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급한 존재가 고급스런 존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큐 두 자리는 세 자리에게 항상 당하게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 아직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생겼는지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이 따로 있다는 증거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과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육신과 지성, 감성, 의지도 자기 뜻대로 절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을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조정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묘하고도 거대한 영적 파워가 있음을 어지간히 깨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귀신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마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절한다. 그것도 자기는 돼지처럼 그저 먹고 마시며 살 테니까 귀신님이여 제발 나에게만 붙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자청해서 사단의 종이 된다. 하나님에게 항복할 생각은 끝까지 꿈도 꾸지 않는다. 항복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으려 든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남한테 큰 잘못만 하지 않을 테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전에 하나님 앞으로 제 발로 찾아오는 자가 없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회개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느님’이 더 좋은 이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 존재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다.

분자의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었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자기를 닮은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었다. 초월적인 영적 존재라야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우리 마음속까지 찾아와 좌정할 수 있다.

기독교가 믿는 절대자의 호칭을 하느님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꼭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장소적으로 초월, 편재, 내재 다 맞는데 '하느님'은 초월만 강조해서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조물주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신이 만물을 창조한 후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운행 법칙만 부여해 놓고 아무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을 얼마든지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속에 태생적으로 숨겨져 있는 탐욕의 죄성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지진, 태풍, 기아, 질병, 온갖 재앙들을 볼 때에 그 뒤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AIDS가 동성애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이라고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하느님이 하나님 보다 더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의도적으로 신은 제발 하늘에만 있고 이 땅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신이 가끔 간섭하는 일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으므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며 온갖 정성과 열심을 바칠 테니 제발 액땜만 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이 하늘에만 계시면 되지 이 땅에 무엇 하러 오느냐는 것이다. 신이 이 땅에 오면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의 통제를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교인들마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큰 일이 생겨야 액땜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지라도 그 사람이 믿는 신은 '하느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중립지대가 없는 이 땅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절대자가 계시는 장소적 개념을 특별히 강조한 셈이 된다.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하늘에만 계셔야 할 초월적 절대자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의미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아버지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가장 독특한 존재다. 외형적으로는 물이 70% 이상 차지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뿐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다. 영계와 물질계 양 쪽 다 접촉하고 교통이 가능하다. 귀신이 인간에게만 들어붙듯이 하나님의 영도 인간에게만 들어 올 수 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마귀의 영 둘 다 수용할 수 있다.

동물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철야 하는 법도 없지만 술 먹고 도박하느라 밤을 새우지도 않는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두 자리 숫자 아이큐를 준 까닭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정도 지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데 높은 지능이 구태여 필요치 않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밀알 씨앗에서 보듯이 생명 자체에 이미 신비하고도 영원한 자생적 능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생명만 보존해선 인간이랄 수 없다.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사람은 겉만 사람이지 사실은 돼지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지정의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영혼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존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둘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쪽의 가능성과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은 인간보다 능력이 더 큰 하나님과 마귀의 영으로만 통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철야 기도하거나 밤샘 도박을 하는 것이 자기 지성과 의지에 의해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야 철야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았기에 밤새 도박을 해도 지칠 줄 모르게 된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귀신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기는 돼지의 내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단의 영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 있어 지정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영은 지정의를 통제하는 더 근본적인 영역이기에 인간 지각으로 자기의 영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모른다. 평생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4:4)

결국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나 사단의 영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마련이다. 모든 인간의 영적 실체(實體)는 절대 중립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흔히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동물처럼 자기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를 믿는 것으로 더 깨인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진화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라 원숭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숭이의 손자 노릇을 자청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셈이다. 그 자랑은 이 땅의 인간 사회에서나 통용되지 영원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는 진화를 믿는다. 또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생전에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며 업적을 쌓아도 그 안에 영원한 가치는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단의 종노릇하다 일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이 땅이 전부며 자기도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나 위급한 경우가 생기면 신에게 비는 경우를 본다. 이만큼 모순된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 명칭 안에 든 깊은 뜻은 제쳐두고 어쨌든 절대적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빌면서 어떻게 물질이 전부이며 자기도 물질에서 진화되었다고 믿는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그 반대로 그러니까 더더욱 불신자의 영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성경의 진술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신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밝히거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 내리는 절차가 아니다.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좌정해 계신다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둘 중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이래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 돼지처럼 살면서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보혈의 권세로 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모신 자,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교통 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초월자가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과 불안과 초조와 분노로 흔들리며 여전히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 속에 까지 찾아오실 수 있다. 신자의 영혼의 깊은 좌소(座所)에 와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가거나 시험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되실 분은 거룩하고 완전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지켜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만이 기독교의 절대자이다.

기독교의 절대자는 단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늘에 계신 어떤 신령한 존재로만 제한될 수는 절대 없다. 하느님(god in heaven)이 아니라 하나님(the One, God) 이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이자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신 분으로 여러 신들과 같거나 비슷하지도 않다. 아니 다른 신이란 아예 없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신(the Best god)이 아니라 **'하나님(the Only God)'**일 뿐이다.

하나님은 절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난 후에야 살아생전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그 횟수로 상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평생에 그런 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가진 것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길만한 위인도 못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비겁함조차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 같음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모를 리 있겠는가?

그런 불쌍한 우리를 두고 보실 수 없어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들으신다. 세상과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뇌, 심지어 자신도 까닭 모르고 실체를 붙들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을 씻어 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과오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울 때 그 분은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웃을 때 그 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신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 존재, 삶, 인생을 완전히 맡겨 드리겠다는 뜻이다. 꼭 입술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아뢰거나, 심지어 그 뜻만 정확히 알고 하나님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그 분은 갇힌 자를 옥에서 건져 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다.

기독교가 믿는 절대자는 결코 하느님으로 제한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세상 끝 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데이트 중에 가버린 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묵상과 기도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한국의 한 유명한 스님이 기도란 소리를 내며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기독교에선 가능한 소리를 내서 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꼭 통성 기도할 때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뜻은 아니다. 모든 기도를 소리 내어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울거나 웃는 경우나, 아직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아이의 경우를 빼고는 동물과 달리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뜻이 있는 "말을 한다."는 의미다.

또 말이란 반드시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가장 근본적 의미는 혼자서 내면세계를 깨끗이 하여 평강을 얻고 깨우침을 얻으려는 묵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타 종교에선 묵상과 기도의 구분이 없거나 아예 어떤 절대자에게 아뢴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에도 묵상은 있다. 성경을 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그 뜻을 깨닫는 것, 혹은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되돌아보며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들은 묵상이다. 묵상(默想)은 문자 그대로 말을 하면 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기도란 성도의 바로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초월적 절대자에게 말로 아뢰는 것이다. 겉으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라도 정확한 문장의 형태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어떤 때는 성전에 나와 정말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경우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아뢸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은 기도다. 그 울음 안에 자신이 하나님께 전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다는 것은 기도가 일방적인 요청, 선언, 넋두리가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가장 먼저 상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첫 마디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다. 하나님을 부름으로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본문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하나님에게 제 사정을 낱낱이 아뢸 테니 들어 주세요. 나아가 제가 들을 테니 지금 나에게 말씀 해 주세요라는 요청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투적인 하나님 호칭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절대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實在)는 온전한 확신의 표현이다.

데이트 중에 가버린 여자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은 못 가진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한 번 본 사람의 이름은 꼭 외운다. 그들의 교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미국 TV에 생판 모르는 남녀를 소개 시켜 데이트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Blind Date’라는 프로가 있는데, 가끔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못 외우거나 다르게 부르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린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증거요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 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하느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따져 본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신자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액땜만 해주든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채워 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채 듣지 않으시고 일어서 나가버릴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복만 비는 기도는 어지간해서 들어 주지 않는다. 이미 신자들도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그런 줄 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조차 거창하게 특별 새벽 100일 기도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예사로 한다. 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겠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한번 끈기 시합을 하자고 덤비는 꼴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 꼭 그런 행사를 안 해도 되고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제대로 알고 부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란 호칭도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이레, 여호와닛시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후에 그 은혜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란 호칭도 인간이 부친 것이다.

하나님이 밝힌 하나님 당신의 이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힌 적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3:13,14)

애굽에서 사백 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간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는 장면이다. 모세로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자로 자처하며 동족 앞에 나설 때에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고 물은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다. 이 대답만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다.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원어에 드러난 히브리 표현법을 영어식으로 바꾸면 주어와 Be 동사뿐으로 그냥 "I am"이었다. 말이 안 되는 이름이다. 영어로 "I am"이라고 말하는 경우란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거나, 어떤 질문에 대한 긍정의 의미밖에 없다. 즉 거기에 누가 있느냐(Who are there?)라고 물을 때에 "I am"(내가 있다)이라고 대답하거나, 당신은 목사입니까(Are you a pastor?)라고 물을 때에 "Yes, I am"(예 맞습니다)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What is your name?"이라고 물었기에 그 대답은 당연히 "My name is Jehova."식으로 답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I am"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모세와 하나님은 지금 동문서답한 셈이다.

모든 문장은 문법적 규칙에 맞아야 한다. 어떤 언어든 가장 간단한 문장 구조는 중학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영어 문장 “I am a boy”와 같이 주어 + Be 동사 + 보어의 형태다. 성경 번역가들은 히브리 원어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 “I am.”을 그대로 살리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려고 그 이름을 보어의 위치에 넣은 것이 “I am who I am.”이 된 셈이다. 또 그것을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

혹시라도 오해를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의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가장 훌륭하고도 완전한 번역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 만큼 잘 표현한 말도 없다. 스스로 있는 자란 “홀로 하나”(딤전1:17)이신 분으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물체나 생물은 하나 예외 없이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된 생성원인이 있고 또 그 존재가 계속 존속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호 의존하고 관계를 맺어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 모든 생물은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만 해도 매일 먹는 음식은 둘 째 치고 물과 공기와 빛이 없으면 한 시라도 살 수 없다.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시며, 에너지 공급원인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과 공기의 분자구조를 결정지으신 하나님만은 별개다. 그 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능력 그 자체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전 우주를 통 털어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름을 안 밝히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이 신학적 의미에 전혀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부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름이란 한 마디로 모든 뜻이 드러나야 하고 우선 짧고 외우기 쉽고 부르기 좋아야 한다. “자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지 않는가? 나아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아니며,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 주어(主語) + Be 동사 + 보어(補語)의 형식을 취할 때는 반드시 주어와 보어가

동격(同格)이거나, 보어가 주어의 어떤 성질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I am an American”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내용적으론 잘못된 말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I am”으로만 대답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어를 생략했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어의 위치에 사물, 사람, 성격, 형상을 나타내는 무슨 말이라도 갖다 넣게 되면 주체인 하나님과 그 설명하는 객체의 신분, 자격, 성격 등이 같아지게 된다. 인간의 말로 표현되는 어떤 말이라도 기왕에 이 땅에 있는 물체나 형상이거나 인간의 지정의 범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특성이 될 수밖에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불완전하고도 썩어 없어질 피조물과 닮거나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보어의 자리에는 올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지전능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빼고는 어떤 존재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이니라.”는 식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성 하나에 자칫 제한 받거나 그렇게 인식되어질 위험이 있다. 자비, 사랑, 긍휼, 공의 등 다른 속성들이 인간의 이해 범위에서 제외 되거나 경시 될 가능성이 생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구별 되신 존재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말로 이 땅의 어떤 형상에라도 자신이 빗대어 지는 것을 방지하셨다. 자신이 인간의 지정의 범위 내에 제한되어지거나 오해 되는 것을 스스로 막으신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까닭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 앞에 구태여 누구라고 이름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까?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는 한 명뿐이니까 따로 이름이 필요 없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식이 여럿이니까 각 자의 이름을 구별해 불러야 하지만 말이다.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아버지의 존함을 대놓고 부르면 큰 실례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도 “하이 짐(Hi, Jim)” 식으로 이름을 예사로 부른다. 그것도 정식 이름 James를 두고 약칭으로 Jim하고 부른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은 있다. 그럼에도 꼭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개인주의 사상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심전심을 강조하는 것은 동양문화인 반면에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것이 서양문화다. (혹시 아버지가 여럿이라 그런 것은 아닐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니까 생부(生父)가 따로 있고 계부도 여럿이다 보니 이름을 불러야 구분되니까 말이다.)

홀로 한 분 뿐이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자기 자녀들 이름은 따로 기억하셔야 한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구분해 부를 필요가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49:16)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구태여 따로 이름이 필요 없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거시기”라고 불러도 된다. 표현이 저속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거시기”라는 표현은 두 당사자가 서로 너무 잘 알아 구태여 말로 설명 안 해도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때에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그런 존재다. 이 지구상의 60억이 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따로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다. 구태여 호칭을 안 들먹여도 그 분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일무이한 존재에 이름을 붙인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신자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 분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한국 사람이 아버지 존함을 입에 잘 올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뜻이지만 아버지는 이름으로 제한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도 다르다는 뜻이다. 부모자식간은 서로 이름으로 불려야 하고 이름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다. 어떤 이해타산 관계도 둘 사이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모자식간도 이럴진대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름을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했고, 성경을 필사(筆寫)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의 “I am”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옷깃을 여미고 붓을 다시 씻은 것은 그런 뜻에서 너무나 당연했다.

하나님의 실제 이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 “I am”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다”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밝히신 이름으로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어렸을 때에 부모가 외출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 집을 지킨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바람에 문이 덜컹 소리만 나도 도적이나 강도가 들었는가 싶고, 귀신이 나올까 밤에 변소도 못 간다. 그러다 밤늦게 현관 벨 소리가 나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철문이 중간에 가로 막아 비록 그 모습은 안 보일지라도 기침 소리나 인기척만 들어도 아빠가 서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순간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안도감을 기억하는가? 혹시나 싶어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내다”라는 아버지의 한마디 대답이 아이에게 주는 사랑, 위로, 능력, 의미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는가? 그간의 모든 초조, 불안, 염려, 공포가 일시에 사라진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빠가 오기 전까지 누워 자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순식간에 몽땅 사라지고 정말 단잠에 빠질 수 있다. 그 때부터 그 집은 아빠의 손아래 완전히 맡겨 드린 셈이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심지어 “아빠다”라고 말해 줄 것도 없다. “내다” 라고만 하면 된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힌 것이 성경에 한 번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두 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밤중에 바람을 만나 곤경을 당하고 있는데 물위로 걸어오는 스승을 보고는 유령인줄 알고 무서워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14:26,27)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내다.(I am)” 출애굽기와 동일한 표현이다. 주어와 Be 동사뿐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다. 그 분만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깨끗이 없애주시며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자요 주님이시다.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하니 다른 자를 보내라느니, 여호와의 이름을 동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느냐는 것들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지명 수배자로 현상금 붙은 범인이었다. 거기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랐기에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력과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돌아가면 당장 붙잡혀 사형당할 것이 빤하니 두려워서 자꾸만 딴 전을 부려본 것이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내다."**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새벽 서너 시가 되도록 스승은 감감 무소식인데다 폭풍우로 배가 당장 뒤집어질 것 같아 그들은 어쩔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칠흑 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지 않는가? 상상만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 설 지경이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내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고 약속하시고 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4:12)고 다짐하셨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출4:19)고 가르쳐 주었다. 말하자면 지명수배가 시효만기로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속에 품고 있던 불안 염려까지 다 씻어 주셨다. 예수님도 이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한번 가정해보라.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께 "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무리 위급한 경우에 처했었어도 "아! 이제는 살았구나. 더 이상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라는 안도와 감사로 충만해지지 않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런 의미기 내포되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나 제자들을 안돈시킨 예수님처럼, 곧 이어서 또 다른 약속과 보장의 말씀을 반드시 그분께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별 달리 없다. 인간들처럼 명함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모세와 하나님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한 것이 아니라 우문현답(愚問賢答)을 한 것이다. 모세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대답을 하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롬1:20)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된다. 종교적 교리를 자세히 몰라도 된다. 그래도 그분 당신은 얼마든지 알 수 있기에 그분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셨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만물이 그 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다"라고 말하는 그 한 마디에도 모든 사랑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내다"라는 것 외에 무슨 말을 더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 은혜, 사랑, 긍휼, 자비, 공의, 정직, 생명, 거룩, 진리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안에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다 녹아져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인간의 어떤 언어와 수식으로도 제대로 그려낼 재간이 없다. 그 분은 인간의 추측과 평가와 분석을 넘어선다. 심지어 신자의 어떤 선하고도 아름다운 기대와 예상마저 그분의 사역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과 계획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그 길은 우리와 다르다. 길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질적, 양적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지성과 더 엄청난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아예 차원과 영역이 전혀 다른 곳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다.

신자가 가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려 들거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의 어떤 의심과 질문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다. "내다" 외의 어떤 다른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다"라고 하시는데 감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 죄로

찌든 우리의 생각으로 그 앞에 반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 앞에는 인간의 어떤 항변과 역설과 불평과 불만이 설 자리라고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정의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으로 그분의 그 풍성하시고 신비한 은혜의 권능을 제한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에 그분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회복되어진 인간 영혼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교통하신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2:11) 인간의 이성이 펄펄 살아 있어선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대자연의 숨소리를 들어 보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의 지체들을 보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와 일터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보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한마디 “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 성도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빙그레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서계신다.

아이가 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거나 무서운 꿈을 꿔 아빠 방으로 뛰어 갈 때에 아빠 방문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두려움은 사실 반 이상 없어진다. 왜 그런가? 비록 방문이 닫혀 아빠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방 안에 아빠가 계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직 방에서 문 열고 나오지 않았지만 “왜 그래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면 그 공포는 씻은 듯이 없어지지 않는가?

신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는 뜻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다!” 라고 하시면서 곧 바로 무릎을 세우고 우리 쪽으로 다가 앉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태여 소리 내고 기도나 찬양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와 앉는 순간, 아직 본문을 읽지도 않았지만 성경 첫 장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내다”라고 다가오신다.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생각을 모으기만 해도 그 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하늘에서부터 부어 주신다. 너무 과장된 말처럼 들리는가? 아니다. 겁에 질렸던 아이가 아빠 방문 앞까지 도달만 해도 안심되는 것과 똑 같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다(I am)”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곧바로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참이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단 말인가?

어중이 떠중이 같은 패거리 신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가?

본문을 세 번째로 살펴보는데, 이 구절을 듣거나 외우면 어떤 마음의 감동과 영혼의 울림이 있는가? 그저 그냥 덤덤한가? 누차 강조하지만 주기도문은 형식적, 기계적,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문(呪文)이 아니다. 주기도문의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여 그 의미와 감동이 우리 심령에 100% 이상 다가와야 한다. 주기도문을 조용히 묵상하는 자체로 가슴이 떨리며 감사와 찬미의 눈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속에서부터 전 존재와 영혼이 끌어올려져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서 특별한 의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주기도문은100% 완벽한 모범적 기도임은 틀림없으나 여전히 하나의 기도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래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한다면 '사랑', '은혜', '풍성', '하나님', '아버지' 각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뜻이 분명한 자기만의 산 체험의 고백이자 증거여야 한다. 사전에 나오는 누구나 아는 정의(Definition)로서 사랑이나, 교리적 설명으로 듣는 은혜의 개념만으로선 부족하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졌기에 기도자 자신 만이 알고 느끼는 감격과 의미가 생생하게 묻어 나와야 한다.

마치 연인의 창문 아래에서 밤새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 애틋한 심정보다 훨씬 더 강한 애정과,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고함지르는 것 이상의 갈급함이 기도 속에 베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단어 하나씩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두 번에 걸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분명치 않는 한국 말

세상의 모든 언어는 그 민족의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인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이다. 그러다 보니 말도 정서적 표현은 풍부한데 반해 비논리적이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표현이 많다. 전화 메시지를 전해 주는 사람이 "김사장인지, 박사장인지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다시 한다고 했던가, 해달라고 했던가 그랬습니다."고 하면 "응! 알았어"하고 대답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소유격, 관사, 단수 복수, 심지어 시제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단적인 예가 본문의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버지이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법은 없고 아예 그런 표현 자체가 어색하게 들린다. 대가족 제도 때에 형제들이 여럿 있던 때의 습관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서로 끼리끼리 모여 교제하기를 좋아하여 항상 '우리'가 '나'보다 우선되는 한국인의 기질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어쨌든 외아들, 외동딸의 경우도 우리 아버지라고만 하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은 '우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사이에 별다른 뜻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2천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로 오신 사건은 역사적 우연으로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반드시 그 때, 그 장소, 그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배경과 정황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숨겨져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 은혜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모든 무대장치를 완벽하게 꾸며 놓으신 후에 주연 배우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갈4:4) 것이다.

당시의 문화, 제도, 관습, 지리, 기후, 역사 등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러하듯이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세밀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었다. 그 무대장치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부인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들며 성경 기록은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다.

신자들더러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아직 시간과 여유가 없고 믿음이 약해 나중에 하겠다고 대답하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나중에 공부하겠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꼼짝 없이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혹은 자기도 모르게 눈치 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로부터 손을 떼야 하고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포기 내지 수정해야 하니까 도무지

내키지 않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데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즐기기에도 아직 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완벽한 무대장치 중의 하나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별히 헬라어는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즉 본문의 "우리 아버지여"의 '우리'를 우리 말 뉘앙스인 '내 아버지'로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영어로 따져 정확하게 자녀 한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My Father가 아니라 자녀를 여럿 둔 아버지- Our Father 다.

중보기도만 해야 하는가?

그럼 당장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기도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인데 왜 꼭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가? 남의 어려움을 위해 중보기도만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되 기도할 때마다 매번 반드시 남을 위한 기도를 빠트리면 안 된다는 뜻인가?

이 문제는 기도할 때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자기 인생을 반응하여 순종하는 행위다. 하나님에게 아부하든, 열심과 치성을 바치든, 억지로 떼를 쓰든 내 뜻과 계획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성취해 내는 작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실현되어지길 소원하고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바치겠다고 순응하는 것이 기도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이뤄나감에 있어서 절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반드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 사람의 신령한 자를 찾고 계시고 믿음이 신실하고 헌신 된 소수의 종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목적과 결과가 미치는 범위는 항상 복수의 사람 즉, 우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대상은 어떤 공동체이다. 그 지도자를 멋지게 세우고 생색내게 하려는,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지언정, 목적은 없다. 지도자는 단지 그 공동체에 복을 전달해 주는 수단과 통로에 불과하다. 모세를 들어 쓰셨지만 실제로 복을 받은 자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의 이백만 백성들이었다. 모세 개인의 입장에선 비록 도망자 신세라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에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불러내어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말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다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기에 문법적으로 당연히 복수 소유격을 사용하셨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도 하나님은 제자들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베드로나 마태 개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왕국 건설에 쓰임 받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고백이다.

우리와 그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자가 볼 때에 세상사람 가운데 우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 즉, '그들'로 나뉜다. 알기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구분이 단순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 믿는지 안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 쪽에서 인간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나눈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불신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신자들끼리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려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인 줄 잘 아는데 왜 감히 불경스럽게도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그 정체성(Identity)을 걸고 시비를 걸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의 정체부터 먼저 알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47절)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누구인지 그 사역을 보고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오직 두 부류로만 판단하신다. 당신에게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이다. 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사역을 듣고 볼 때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이 이뤄졌음을 믿는지 여부다.

목사님들이 불신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에 신자마저도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의아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 예수님이 지적했던 대로 말한 것이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귀신이 들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

간혹 불신자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단은 저주한다. 그런데도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진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저 막연하게 절대자는 한 분이고 그 조물주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를 다스리고 있겠지 정도로만 인정한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성실히 지키며 선행과 구제에 열심인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오늘 날의 불신자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기독교에서 예수 안 믿었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데는 그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필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사11:1-3)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다윗 가문에 메시야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데 보이고

들리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왜 보이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가? 아주 간단하다. 그대로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구상의 인구는 몽땅 다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막상 진짜로 하나님의 법정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 세워졌을 때 감히 자신이 죄가 없으며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에서부터 사기, 궤휼, 음란, 시기, 질투, 분노, 저주, 거짓이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는데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살아 펄펄 뛰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죽인 자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평생을 두고, 그것도 아주 고매한 사람들이 수양과 훈련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불신자들은 "왜 예수가 와서 죽느냐? 그 사형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다고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따진다. 그 주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용서가 싸구려 내지는 공짜라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자기 죄가 절대 단순하게 용서될 성질이 아님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둘째는 2000년 전 로마의 한 청년 사형수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죄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죄를 씻고 죄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다. 나 혼자 얼마든지 선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자신이 있는 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고도 죽은 후에는 생전에 몰랐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친다.

성전 한 복판에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오늘날의 불신자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며 떳떳하게 살았노라고 큰소리 쳤다. 바로 그런 자들이 가장 완벽한 선을 실천한 예수를 가장 더러운 죄악인 살인으로 갚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잘못된 것이라곤 하나 없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세상 권력과도 갈등이 없었다.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무죄한 예수를 온갖 모함과 시기로 십자가에 달아매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꼭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전혀 구원의 가능이 없었음을 제대로 아는지"만 물으신다. 그래서 그 분의 심판 기준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했느냐 아니냐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인간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설교말씀을 듣고 교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나는 사형 집행만 기다리던 사형수였는데 어느 날 재판관의 자비와 긍휼로 그 사형 집행이 취소되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내 남은 인생을 바친 자가 되어야 한다.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어느 날 저녁 찬양 예배 중에 순간적으로 환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묘한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천국 보좌 앞에 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소 한 구석에 제가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른 것이다. 온 몸에 암에서 살려 주신 수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는 채로 서서 찬양을 드리는 데 도저히 몸 둘 바를 모르고 속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감격이 내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예수님의 필터를 통과한 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가 싫었는데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가 좋아진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보상, 은혜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현실 생활이 힘들던 편하든 관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제와 그 삶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한 마디에도 속에서 눈물이 절로 나오고 주기도문만 묵상해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본문의 '우리'라는 개념이 명백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서로 알게 된 우리다. 더 이상 상대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사이가 된 자들은 모두 '우리'다. 주 안에서 만난 자들끼리는 외모, 출신 배경, 나이, 학식, 교양, 재산, 가문, 지연, 권력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두 사람의 관계에 털끝만 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다. 오히려 그 '누구누구'가 우리일 수 있어도 말이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쿰의 예배에 어떤 자들이 모였는가? 왕족, 귀족, 장군, 귀부인, 지식인이 있었는가 하면 상인, 농부, 무식한 시정잡배, 노예가 참여했다. 유대인 뿐 아니라 각처에서 로마로 모인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인간적 기준으로 그들을 '우리'로 묶을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세상으로 치면 이만한 어중이떠중이 같은 패거리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천국 언어로 하는 기도와 성령의 치유가 있었고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넘치는 찬미의 제사가 있었다. 날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들을 우리로 묶어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핍박을 피해 숨어 예배드린 곳에 찾아오는 자가 입구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잘 알지 못해 안에서 암호를 물었다. 그럼 한 결 같이 헬라어로 생선이라는 뜻의 익투스가 돌아오는 답이었다. 익투스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문장의 이니셜을 모은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우리로 묶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였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생판 남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한 마디 말만 듣는 그 순간 자연적으로 10년 지기 이상의 친근감이 생긴다. 우연히 고교 동창이나 고향 친구를 만나는 그런 기쁨과도 다르다. 단순히 어떤 동일 집단에 속했다는 동류의식과도 다르다. 세상적인 인연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교류하고 있음을 느낀다. 인간이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신자끼리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어느 음식점이 맛있고, 어떤 백화점에 옷을 세일하고 식의 얘기는 이제 뒷전이다. 자녀가 일류대학을 못 가고 변호사 사위를 보지 못한 것들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유행, 풍조, 경향,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소유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가치들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의미와 가치가 없어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것뿐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난 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그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자 통로일 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따로 있다. 세상의 것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만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도 좋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은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갖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인간적 능력이나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영광만을 세워주는 법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기 싫은 사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재미 때문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밤을 지새워도 지겹지 않고 더 힘이 나며 위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증거 하게 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지 세상과 죄악과 사단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증거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속해진 그 신분의 변화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된 자가 '우리'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 안에 들어 왔는가? 아직도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가?

세상에서 최고로 시원한 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아버지 갈증(Father Hunger)

로버트 맥기라는 심리학자가 누구에게나 "아버지에 대한 갈증(Father Hunger)"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말 자상하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인생의 모범과 기준으로 삼을 만큼 존경할 만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그리워 한다는 것이다.

참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다. 세상의 어머니는 누구나 다 좋다. 나쁜 어머니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너무 엄했거나, 술주정뱅이 폭군 아버지였을 수 있다. 무능력해 전혀 의지가 안 되고 어려서부터 자식들 고생만 시킨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족을 내팽개치고 딴 살림 차린 아버지도 많다. 반면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자식 곁에 진정한 사랑으로 끝까지 남아 있는 쪽은 항상 어머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꼭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자식을 사랑한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 어머니는 직접 자신의 배가 아파 자식을 낳았고 집안에서 항상 아이와 부닥치며 양육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그럴 수 있다.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지 아버지가 더 나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서로 역할을 다르게 하셨을 뿐이다.

미국에 처음 와 고속도로 휴게실의 남자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가는 선반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여자 변소에도 있는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미국 남자들이 한국 남자보다 더 자상하든지 아니면 모두 공처가인가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의 젊은 부부도 아빠가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다 한다. 아이들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너무 엄하고 무서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좀 더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신자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실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른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기독교 특유의 종교적 호칭으로만 간주하는가? 한 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여러분은 어떤 형상, 특성, 성격을 연상하는가? 여전히 너무 완고하여 잘못하면 벌만 주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요즘 식으로 기저귀까지 갈아 주는 아버지인가?

아마 거의 모두 후자의 이미지를 떠 올릴 것이며 그렇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언제 어떤 모습에 처해 있든 받아 주시며,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며,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답으로 갖고 있다.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점 만점으로 치면 50점도 채 안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사랑 중심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머니'로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하나님마저 요즘 풍조를 닮아 여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손자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라고 하지 않고 "각자를 대신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하게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면 모든 인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뜻이 되고 또 그렇게만 이해될 소지가 많다. 그렇게 이해한 교인들은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믿기로 결단하고 교리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양 생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몽땅 바겐세일 하듯이 누구나 용서하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신자 개인이 자신을 볼 때 십자가에 수십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행동으로 지은 윤리적 죄 몇 가지를 들고 나와 용서 받는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것으론 기독교 신앙의 근처에도 못 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육신, 지정의, 영혼을 다 합친 전 인격체가 도저히 내세울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자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곤 형벌뿐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슨 수를 써도 피할 길이 없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감당하셨음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인격을 걸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절망과 죽음뿐이었다는 철저한 항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매여서 죄악과 사단과 사망과 짝하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힌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개인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마치 칠흑 같이 어두워 향방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나왔기에, "휴우! 이젠 완전히 살았구나."라는 안도감, 평강함, 자유함을 누리는 새 인생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터널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중생 이후에도 혹시 죄를 짓더라도 무조건 용서해주시겠지 하는 뻔뻔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선 안 된다. 십자가의 용서를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아무리 잡아 당겨도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간주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는 신자를 언제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 주시긴 하지만 신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책임마저 면제하신 것은 아니다. 신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죄라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

신자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자, 어쩌면 그 원인의 전부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중생하는 체험을 겪을 때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충만한 감격을 누려놓고는 갈수록 그것이 퇴색되거나 망각해버린다. 예수님의 죽음은 잊어버리고 부활만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 첫째 원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분명 사랑이시다.(요일4:8) 그러나 기저귀까지 갈아주는 아버지처럼 너무 사랑 일변도로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믿음이 필연적으로 힘을 잃고 기쁨이 상실되는 결과가 따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신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당연히 베풀 것이라는 생각이 신자의 내면 밑바탕에 끊임없이 흐르는 본심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만한 특별한 관계에 들어섰으니 이제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고 덤빈다. 이는 아주 잘못이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6:31-33)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그런 떡을, 그것도 매일 달라고 요구했다. 모세 때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34절) 했다. 자기들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딱하고 내려와 입에다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백성이니까 특별대우를 해주어 매일 먹고 사는 문제만은 걱정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흔쾌히 오케이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므로 매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로 온 여러분 모두 그러한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신앙생활 수십 년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다.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되풀이 되는 교회생활과 메마르고 풀 죽은 삶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럼 완전히 예수님 약속 따로, 우리 믿음 따로 아닌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사이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아들 딸 하나씩 두셨다. 아들이 한창 사춘기 때인 중학교 일학년 여름 방학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울서 대전까지 도보로 여행을 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발은 여러 번 불어 터지면서 몇 주가 걸린 일종의 극기 훈련이었다. 하나님이 신자와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길 가다 목이 타면 시골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사이다를 한 병 사서 나눠 마시는 관계다. 같이 피곤하고 발이 불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업고도 대전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택시를 불러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신자의 고난 가운데 묵묵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 당신의 발이 불어 터거나 얼굴이 타지는 않겠지만 신자를 가만히 지켜보셔야만 하는 그분의 심령은 분명 타들어 간다. 능력이 모자라 당장 구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59:1)

그러나 그 사이다 한 병은 지금껏 마셨던 어떤 음료보다 가장 시원하다. 아니 세상에선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사이다다.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려울 때 더욱 곁에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나눠 마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루 종일 메마른 길을 같이 걷고 난 이후라 더 달다. 그들이 포장도 안 된 시골 길을 걷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꽁보리밥에 된장찌개와 열무김치를 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나눠 먹는 그 맛을 한 번 상상이라도 해 보라. 얼마나 꿀맛이었겠는가?

물론 간혹 너무 힘들어 깨끗한 호텔에서 뜨거운 물에 샤워하며 스테이크로 배를 채우고 단 잠을 청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날은 다 떨어진 여인숙에서 모기떼에 뜯겨 가며 밤새 설친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 평생에 그 때만큼 행복했던 때도, 또 아버지와 그만큼 친밀하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는 분명히 아주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에게 신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살만큼 소중하고 천하를 다 주고 그 영혼을 건질 만큼 귀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만, 수백만 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신자를 다루시는 섭리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은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취급을 하신다. 영어로 따지면 ‘Special ‘한 관계가 아니라 ‘Unique’한 사이다. 특별한 대우는 아주 특별하게 귀한 손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손님, 격이 높은 손님에게 하는 대접으로 반드시 식사는 일류 레스토랑, 차는 리무진, 숙박은 최고급 호텔로 모시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특별대우다. 그러나 그런 특별대우는 사실 속을 뒤집어 보면 서로가 무엇인가 그런 대접을 통해 찾아 먹을 이익과 지켜야 할 체면이 최고 목표이지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없다.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호텔가서 스테이크 썰지 않는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면 족하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끼니마다 호텔 뷔페에 데려가서 먹인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망치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그런 대접만 받고 자란 자식은 거의 다 망한다.

예를 든 그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야 없지만, 진정으로 자식의 앞날만 생각하여 그런 고된 훈련을 감히 시킬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다. 놀라지 말라. 그 아버지는 몇 대 독자였고 그 아이 또한 독자로 집안의 장손이었다.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런 훈련을 시켰겠는가?

그러나 단순히 남자답게 훈련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참으로 깊은 속내에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차원, 진실한 모습으로 바꾸려는 뜻이었다. 이제 어른 대접을 해줄 테니 너와 나의 부자관계만은 모든 속내를 서로 털어놓고 대화하며 의논할 수 있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관계

독특한(Unique) 취급은 특별한 취급과는 다르다. 일대일의 둘 만이 아는 관계, 제 3자가 전혀 알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에 그 부자간에 일어난 숱한 일들은 도저히 남이 알 수 없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힘이 그 둘 사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서로 간에 아무 허물과 격의가 없기에 보리밥에 된장찌게, 겨우 둘이 누울 만한 단칸방,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등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진정한 사랑의 보살핌과 영혼의 교통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

독특한(unique) 취급이란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 사람과만, 또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대일 개인적 관계를 통해 그분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일단 맛본 신자는 그 후로 구하는 대상과 신앙생활의 초점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눌 수 있고 둘이서만 통하는 비밀이 있기에 어떤 일에도 대화가 가능하다. 그분께 받아낼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 무엇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이 훨씬 귀하다. 또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신자에겐 그분만이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 하나님에겐 바로 그 신자에게만 이룰 구별된 계획과 뜻이 따로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다. 또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길은 기도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특별한(special) 대우를 바라는 것은 보상과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신자다. 왜 호텔 스테이크를 매일 안 주는지 항상 불만이다. 스테이크만 구한다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며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신자와 하나님 두 사람만의 독특하고도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독특하다. 또, 독특한 관계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관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라도 서로 부담 없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이라는 뜻이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는 무조건 가난하고 검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된장찌개든 스테이크든 음식의 종류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완전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들어선 것이다. "사랑한다, 믿는다, 약속한다, 보증한다, 미안하다" 등의 말조차 사실상 필요 없다. 서로 믿고 사랑하는데 단 한 치의 틈새도 없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의심도 없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가도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 줄 수 있는 사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만나를 매일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마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떡 자체를 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당신이 떡이고 생명이니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주림을 채워 주시되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과 때에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나 같은 떡도 간혹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신자로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중생의 체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독특한 관계를 맺자고 신자를 초대한 것인데 그 초대는 오직 예수님과 일대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서두에 예를 든 로버트 맥기의 "아버지 갈증(Father Hunger)"의 근본적인 뜻도 사실은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상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증이다.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 사함에 대한 소원과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다. 사람이라면 그 갈급함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눈치 채고 있다는 뜻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갖는 그리움이다. 자신의 근원과 출발을 찾아 뿌리를 캐나가는 작업이다.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 구원의 숙제다.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갈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정답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게 된 것이다.

영원 속에 정지된 시간

자식을 여럿 둔 부모는 그 모든 자식을 각각 일대일로 사랑한다. 형제간에 서로 모르게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더 많다. 그러나 자식에 따라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고 차별 대우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차별 대우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모 쪽에선 그 나눠주는 사랑이 모든 자식에게 한결 같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리어 힘들어 하고 골치 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다. 그러나 열 손가락의 굵기와 모양과 길이는 각기 다르다.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형과 아우가 모를 수 있고, 형이나 아우와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를 때도 많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대한다. 세계 60억 명의 인구 모두 지문과 DNA가 같은 자 하나 없다. 지금 당대뿐 아니라 전 역사를 통틀어, 앞으로 이 땅이 살아 숨 쉬는 동안 태어날 모든 세대 가운데도 나와 똑 같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선 일일이 한 사람씩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상대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전 인류 역사, 아니 우주의 전 시간을 통틀어 똑 같은 순간이라곤 단 한 번도 없다. 영원 속에 잠시 정지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다. 힘들고 지쳐 정말 누더기처럼 된 한 인생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바로 그곳에 우주의 근원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듣고 눈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 외는 아무 것도 없다.

또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저귀까지 갈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평생 기저귀만 차고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기저귀를 안 갈아 주실 때가 훨씬 많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예 갈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취급을 기대해선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승리를 맛 볼 수 없다. 예수님 당신과 비밀스런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꽁보리밥을 나눠 먹는 그 큰 은혜와 권능을 맛보아야 하고 그런 감격을 소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서울서 대전까지 주홍 카펫 깔아 놓고 리무진으로 모시고 가는 법이 없다. 역사상 그런 대접을 받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런 대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대신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선진들 치고 생명이 오락가락할 만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치지 않은 자 또한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이 큰일을 맡기는 자일수록 그 인생은 고달프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자꾸 돈 달라, 벤즈 달라 기도하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돈만 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욕심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번 이일을 성공시킬 만큼의 돈만 주시면 두 번 다시 귀찮게 굴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시겠는가?

삼척동자라도 그 답은 알 수 있다.

재벌 회장 같은 특별한 아버지는 혹시 그런 요구마저 들어줄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터벅터벅 함께 걸어가 주실 뿐이다. 포장길이든, 자갈길이든, 황토 길이든, 강과 계곡이 가로막든, 오늘도 내일도 성도의 신발이 헤지고 발이 부르터도 그 당장에 택시를 불러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칠 때마다 돌아 서면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뛰고 바로 곁에 서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실수로라도 못 보는 경우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말이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아뢸 때에 언제든지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지금 그분과 정말 독특하고 신비하며 비밀스런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찾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물며 천부께서 그럴 수는 더더구나 없지 않겠는가?.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독특한 관계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탐심이자 우상 숭배일 뿐이며 실현도 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언제든 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맛있는 사이다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루 종일 메마른 땅을 걷고 난 후에는 꽁보리밥에 된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식탁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감격을 소원하는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또 그것만으로 다윗 같이 내 잔이 차고도 넘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제발 힘 좀 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칭찬과 격려와 아부

예수님이 신자가 따라 해야 할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다.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의 뜻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간혹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인간이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수식어를 몽땅 동원하다 보니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에 시간을 다 잡아 먹고 막상 간구하는 내용에는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광대무비하시며 신묘막측하시며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사랑과 온유가 온 땅을 덮고도 남으시며… 등등" 하는 식이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찬양이란 영어로 하면 'Praise' 인데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그럼 장로님들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칭찬한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고 끝이 없는데 왜 잘못이라고 지적했는가? 칭찬을 격려 및 아부와 서로 혼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격려'는 상대의 용기를 돋우기 위해 장점만 드러내어 강조하고 약점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거나 간과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아부'는 상대의 장점은 사실 이상으로 강조하고 약점은 과소평가 내지 무시하며, 나아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어 실제 이상으로 좋게 말하는 것이다. 신하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경우다.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장점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좋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정해주는 것이 칭찬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잘 된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인정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은 왜 그럴까? 사람의 본성이 죄로 부패되어 있는지라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시기, 질투, 비방에는 후한 것이 인간이다.

아이가 산수 시험 점수 100점을 맞아 오면 잘 했다고 말하는 것은 격려도 아부도 아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으로 칭찬이다. 그런데도 "산수만 100점 맞으면 무엇 하나? 국어는 평균밖에 안 되는데", 혹은 "10명이나 백 점 맞았다는데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맞아 전교 1등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면 아무리 말로는 잘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다.

대신에 51점 맞아 석차가 꼴 등에서 몇 번째인데도 사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인 50점에서 1점이나 더 얻었으니 잘했네요."하면 아부다. 자기 아들이 전번 시험에 55점 맞다가 이번에는 60점 맞아 오면 "그 봐!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 다음에는 조금만 더해 한 70점 맞도록 해 봐. 이번처럼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격려다.

아부가 격려나 칭찬과 가장 다른 점이 장점을 더 크게 과장했다는데 있지 않다. 그럼으로써 돌아오는 반대급부에만 관심이 있다는데 있다. 이에 반해 칭찬과 격려는 상대로 하여금 힘을 북돋우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칭찬은 장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격려는 장점만 더 부각시킨 것이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더러 좀 더 힘을 내시지요라고 격려할 수는 없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아부는 잘 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도가 지나치다 보면 의도적이든 습관적이든 간에 쉽게 아부 수준까지 가버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때서"라고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선 안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탄하셨지 않는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사1:11,12)

복만 받으려고 무엇이든 자꾸 바치려 드는 것은 아부일 뿐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만 한 것이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 되지 못한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니 응답 또한 될 리 없다. 하나님이 제물을 많이 바치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 심중을 꿰뚫어보고 있지만 우리더러 정확하게 그 심중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다우심을 있는 그대로, 아무 가감 없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한대로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배운 그분의 속성을 열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 구태여 특별한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장로가 수십 가지의 수식어를 동원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정말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절실한 고백이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인격을 걸고 순종으로 반응한 확신이 없이 단지 종교적 치사나, 머리로만 인정하는 관념적 서술이거나, 최고의 예의만 갖춘 겸손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기도자가 자기 전 존재를 건 찬양이 되어야 한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흰 수염의 도사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에 어떤 특성, 성품, 형상이 떠오르는가? 아마 열이면 여덟, 아홉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흰 수염을 휘날리고 긴 장대를 쥔 할아버지 형상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장로님들 기도한 그대로 자상하고 인자와 온유가 흘러넘치되 위엄과 권위가 베어 나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다. 한 마디로 자비는 끝이 없으며 못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자다. 실감 나게 말하자면 슈퍼맨에다 성모 마리아를 겹쳐 놓은 듯한 이미지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holy)의 의미는 이와는 다르다. 쉽게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으며 전지전능한 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니다. 헬라어로 '하기아조'인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또 구별이란 반드시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할 즉, 구별을 받아야만 할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경우는 우주의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사랑과 온유와 정의와 위엄의 세기가 특별하게 강한 모습이 거룩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된 것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선 그 어떤 것들과도 같을 수는 절대 없다. 세상과 같거나 정도가 약하더라도 비슷하면 거룩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다.

세상과 다르다면 당연히 사람과도 달라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위인이라 칭송 받는 자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 간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세종대왕 등 그들이 갖는 어떤 위대한 장점도 하나님의 거룩성과는 거리가 멀다.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르고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나아가 신화나 소설 속 인물의 특성도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할 수 없다. 제우스, 헬라클레스, 큰 바위 얼굴 등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품성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혹시라도 그럴 만 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도 없다. 요컨대 하나님은 절대 흰 수염의 도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전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특성 한 가지만 들라면 무엇을 들겠는가?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역으로 접근해 보자. 예수님의 권고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가 말이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딤전1:17)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 썩지 아니한다고 했다.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질은 무엇이라도 썩을 수밖에 없다. 다이아몬드도 썩고 인간도 죽으면 그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 썩지 않으려면 영원해야 한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오직 그만이 영원하시다.

둘째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신선이나 도사 같이 가시적 형체를 갖지 않는 영(靈)이시라는

뜻이다. 인간의 오감(五感)으로 감지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고전12:3),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없다(고전2:11)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열망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自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해야만 존속(存續)할 수 있다. 모든 동물은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그 사슬의 정상(頂上)에 위치해 있다. 그런 인간조차도 매일 먹는 음식은 둘째 치고 물과 햇빛과 공기에 한 순간이라도 차단되어 버리면 당장 죽는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란 물, 공기, 햇빛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이 세 가지 특성만큼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루는 핵심이다. 그럼 이 셋 특성을 또 한 마디로 줄이면 무엇이 되겠는가?

기독교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다.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수24:2)라고 지적된 대로 그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신들을 섬긴 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개종자(改宗者)였다.

그가 개종하게 된 구체적 경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그가 믿는 우상들 중에는 태양신도 있었는데 하루는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크기 색깔이 달라지는 태양이 신(神)일 수는 없다. 내가 믿는 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이어야 한다."

인간이 이 땅에서 보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힘 있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 태양이다. 그러나 태양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빛을 잃고 쇠퇴할 때가 있다. 태양이 그러할진대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치고 영원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고 깨달았던 것은 너무나 지당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새로 시작된 인류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만 매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 편에서 이끌어

내어”(수24:3) 성령의 간섭으로 변하는 것은 신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 강 저편 우상의 나라에서 구별해 내어 강 이편 영원한 세계로 이끄셨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라는 세 특성을 한 마디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태어나고 살며 죽는 것이 없다. 성장과 가감과 변화가 없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1:24) 또 영원하려면 변개, 거짓, 사기, 위선 등 이전 상태와 비교해 달라졌거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 개입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당연히 후회도 없으시고 오직 신실하실 뿐이다.

‘영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이다. 완전해야 영원할 수 있다. 불완전한 것은 변하고 썩기 마련이며 한시적(限時的)이다.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것이지, 어떤 존재가 전지전능해져서 신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태초부터 홀로 하나로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완전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 또한 필연적으로 100%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분은 100%의 완전한 진선미요, 100%의 완전한 사랑, 공의, 정직, 자비, 온유…, 100%의 완전한 지성과 능력이다. 하나님 안에 조금이라도 지적으로 모르거나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모르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채워야 하므로 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또 혹시라도 티끌만한 죄, 부정, 더러움,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일1:5)

하나님 힘 내셔야지요?

신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전지전능과 무한한 자비만 떠 올려선 안 된다. 그 두 특성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들 중의 일부이지 거룩 자체는 아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다르며 하나님만이 갖는 유일한 특성은 영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그대로 응답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기껏 무엇이든 소원대로 이뤄주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이나, 금, 은, 쇠로 만든 도끼 중 어느 것이 네 도끼냐 묻는 신선처럼 생각한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잘 믿고 착하게만 살면 내 쇠도끼 말고도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시겠지 기대하면서 말이다.

신자가 기도한 대로 제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지체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가? 혹시 하나님이 내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가? 언제나 이 두 가지 의심이다. 참으로 모순된 생각이다. 기도 시작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 놓고 기도 마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 같은 의심으로 끝을 내면 기도는 왜 하는가? 명색이 신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제대로 믿은 구석이라곤 없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왜 미사여구 수식어를 그렇게도 많이 동원하는가? 자기의 신앙 실력을 드러내고 싶은 바리새인적인 위선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론 오직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에만 관심이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혹시라도 내 치성과 정성이 모자라 응답이 지체되거나 안 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기도를 길게 늘어뜨리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칭찬은 아무리 길어도 아부가 아니지만, 아부하기 위해선 찬사를 많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에 대한 아부가 지나치면 자칫 인간이 하나님을 격려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 “왜 빨리 응답해주지 않지?”라는 의심은 필연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는가라는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떼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왜 이리 힘이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부터 힘을 낼 테니 하나님도 제발 힘 좀 내세요. 그래서 빨리 이 기도 응답해주셔야지요”로 들린다면 지나친 말일까? 기운 빠진 하나님에게 “으샤!, 으샤!” 하면서 기도자가 힘을 보태 주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서도 손의 못 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의 창 자국에 손을 넣어 본 후에야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라고 말씀하셨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초자연적 신통력을 받았거나, 성경을 꿰뚫는 신앙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굳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쉽게 말해 내가 기도한대로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현재 보이는 모습이 내 기대와 이해와는 다르다 해도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내게 제일 유익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이뤄짐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럴 징조도 없다.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분만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에 티끌만치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 다른 말로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썩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흔히들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반드시 이뤄 주실 것을 믿는 자가 있다. 마치 미리 김치 국부터 마시듯 응답도 되기 전에 그대로 응답될 것에 감사한다. 자칫 자기 의지력을 믿고 스스로의 신념에 투철한 것뿐으로 자기 생각에 속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하나님 외는 아무도 모른다.

'믿~슙니다'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 신실하시고 거짓과 변개가 일절 없으시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떤 계략으로 조종해서 일부러 이렇게 힘든 고난에 빠트린 것이 아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 단 한 점의 먼지와 오류가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다. 그 분이 신자에게 하신 약속만은 천하는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55:11)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구태여 성경을 몰라도 누구나 아는 ABC 같은 상식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기껏 그분은 One Bed 아파트에서 Two Bed로 바꿔주고, 이번 달 렌트비에서 500불 모자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겨우 채워주는 정도로 알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일들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정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실하게 붙들라는 것이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사50:2)

그럼에도 왜 신자들이 이번 달 렌트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 '믿~슙니다'로 기도하는가?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불신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칭찬이 지나쳐 하나님께 아부하고 있거나, 하나님더러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믿습니다'로 그만이지 '믿~슙니다'가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믿습니다'는 찬양이지만, 입에 침 튀겨 가면서 고함지르는 '믿~슙니다'는 아부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돈이 많고 권세 높은 자가 아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는 자 아닌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 같은 자다. 사람을 믿을 때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돈과 권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세상의 권력자와 부자 곁에는 아첨꾼만 들끓게 마련이다. 마치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요즘도 살진 짐승을 바치려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가 들끓듯이 말이다.

신자의 참 소망

동독이 자유화되기 전 아직 공산독재 국가였던 시절에 있었던 실화다. 맥클렌부르크라는 시골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10살짜리 여학생이 있었다. 기독교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부모가 신자라 집 안에서 비밀로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온전히 믿는 그녀로선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말이라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화가 난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50번 적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녀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라고 50번 적어 갔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를 백번 적어오라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십니다.”를 백번 적어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선생님이 “너를 비밀경찰에 고발해 벌을 받게 할 테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신고하러 나갔다. 학교 운동장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자전거가 넘어지고 선생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이런 간증을 듣는 신자는 당장 그 선생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대단하신 능력의 소유자라는 데만 신경을 쓴다. 물론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도 동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무슨 큰 대수인가?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받은 어린 여학생이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설마 상대 선생을 죽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 핍박을 그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겠지만 말이다. 틀림없이 그 소녀가 더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이랬을 것이다. “내일 이 숙제를 선생님 요구대로 해가지 않으면 어떤 수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설사 또 다른 핍박을 받는다 해도 이겨 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소망과 구원과 의지되시는 하나님 당신만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이 환난과 핍박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앞부분의 기도는 잘 한다. 그것도 머리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들고서 무슨 응석이든 받아주는 “슈퍼맨+마리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그러다 응답이 지체되면 그저 하나님께 아부 내지 격려하기 바쁘다. 그래도 감감무소식이면 그 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실망해 넘어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온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부나 격려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 분 완전하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분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절대 같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오직 한 가지는 영원하시다는 것, 완전하시다는 것, 변개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만이 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참 능력이자 권세다.

우리 또한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여학생처럼 우리의 소망, 의지, 위로, 능력, 구원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급선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 모든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 때 비로소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부하여 성전 마당만 밟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것인가?

자동 응답기를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

하느님 이번에도 저를 버리십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확실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여부이겠는가? 아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어 핑계치 못한다.(롬1:18,19) 아무리 완악한 불신자라도 그랜드 캐넌에 가보면 너무나 웅장한 그 모습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는 실토가 저절로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신자이고, 계속해서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으면 신자인가? 이것도 아니다. 불신자도 자기가 생각해도 큰 죄다 싶은 잘못을 범하면 "이러다 천벌을 받지"라고 스스로 두려워한다. 또 남이 그러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해"라고 충고한다. 아주 특별한 행운을 만났거나 자기 계획과 노력 이상으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늘이 나를 도와주나 봐"라고 한다.

이 모두가 무심결에 하기는 하지만 전혀 동의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간섭, 섭리, 은총 같은 종교적인 용어를 모른다 뿐이지 인간 만사를 주장하는 눈에 안 보이는 신비한 힘이 있고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인정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L의원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대선후보경선을 중도포기한 후 아산 현충사로 가면서 "하느님, 이번에도 저를 버리십니까!"라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밖에까지 들릴 만큼 절규했다. 비록 하나님의 호칭을 하느님으로 잘못 알았지만 자기로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것이 어떤 절대자가 방해했거나 그분의 비위를 거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앞으로는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는 애절한 하소연이었다. 그것은 기도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이방인들도 간구한다고 하셨지 않는가?(마6:31,32)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지는 않더라도 불신자들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절대자를 찾고 간구한다. 엄밀히 말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신자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신자인가? 표면적으로는 물론 그렇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를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오래 된 신자 가운데도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많다.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장로나 심지어 목사도 주저하며 즉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예'라고 대답한 자들조차 천국 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물으면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참 구원을 받지 못한 신자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는지에 관해선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준과 재간은 없다.

대화하시는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잣대는 따로 있다. 특별히 기도라는 측면에서 신앙과 불신앙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신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간구는 외적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마침 말은 빼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신자란 기도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으로 기도자가 확실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로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신자다. 그런 인식이 전혀 없고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모든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절대자 하나님은 종교마다 그 이름만 다르지 오직 한 분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바친다. 기도로 따지면 이슬람교도만큼 많이 하는 자들도 없다.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절대자에게 온갖 미사여구로 아뢸 줄은 알아도 하나님 당신이 기도자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창조주로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일대일로 개인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가 신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신자다.

그럼 대화(對話)는 어떤 것인가? 일대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간혹 여러 명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해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분명히 이뤄지면 대화다. 그러나 상대가 듣던 말든, 알아먹든 말든, 관심을 갖든 말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잔소리, 주문, 타령, 헛소리, 독백이다. 또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향해 말하거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대와 말을 주고받는 것은 연설, 선전, 광고, 발표, 포고이지 대화는 아니다. 대화가 되려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 표정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에게 말씀하는 정도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단계로는 아직까지 신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들을 줄 알고, 듣고 있으며, 또 항상 듣고 싶은 열망에 사로 잡혀 있는 자라야 신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신비하거나 이상야릇한 현상이 아니다. 기껏 피조물인 주제에 주제넘게 절대자와 맞서보려는 억지, 무모함, 교만과도 거리가 멀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빼고 인간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더 주제넘고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쉽게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그분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 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선 제대로 참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인간이 우연에 우연이 겹치어 진화된 존재라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떠한 미개 종족이라도 비록 초보적인 모습일지라도 절대자에 대한 근본 인식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면 흔히 작가의 혼이 베여 있다고 평하고 또 그 작가가 반드시 친필로 자기 작품임을 증명하는 싸인을 한다. 말하지 못하는 물질로 만든 것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고귀하고 신령한 생명체인 인간에게 그 만드신 분이 친필 싸인을 해 놓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모든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만드신 분이 친필로 싸인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 넣어주신다.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고 하시면서 모든 신자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아로 새겨 놓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올려놓았다. 그 분은 우리 모두를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확실한 느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 접니다. 저 누구누구 아시지요? 다름이 아니고….”라는 진심어린 대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같은 인자하고 따스한 미소를 띠우고 자녀의 말을 들으려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향해 무릎을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기도드리려고 엎드리자마자 마치 따발총 쏘듯이 자기 할 말만 쏟아 놓아선 안 된다.

비나이다 타령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 대화가 아니다. 부부 싸움, 학술적 토론, 정치적 논쟁을 두고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 가는 과정이라야 대화다. 자기 뜻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다. 서로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공통분모를 찾아 상호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 두 의견 중에 하나를 결정하든지, 쌍방이 만족하는 제 삼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화다.

불신자도 기도는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외칠 뿐이다. 절대자의 대답을 듣지 않는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일방적인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한정 없이 빌기만 한다. 빌다 못해 오직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탑을 3천 번 돌고 절도 만 번 한다.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록 한다. 마치 하루 종일 대답 없는 자기들 신을 부르다 못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고 광란의 춤을 추었던 갈멜 산상의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다 도저히 지치면 중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기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구자의 계획과 욕심만 있지 절대자의 뜻은

없다. 또 절대자의 의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빌어도 된다. 욕심이 지나쳐도 되고, 선(善)과 거리가 멀어도 되며, 심지어 나쁜 것을 구해도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아들만 낳게 해 주시면 시댁식구로부터 구박만 받고 천덕꾸러기 같은 저 딸은 가뜩이나 살기 힘든 데 고아원에 갖다 버려도 좋습니다", 혹은 "사업만 흥하게 해주시면 동업자와 헤어지는 정도는 눈 깜짝 안하고 해치울 수 있습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듣는 내용 아닌가? 점쟁이들이 제시해주는 문제 해결책과 같지 않는가? 그들에게 신은 오직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로버트다. 겉으로는 인간이 손을 싹싹 빌고 신에게 허리를 굽힐 대로 굽혀 절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이 신에게 명령하고 신이 인간에게 복종한다. 아니 그 일을 이루기는커녕 전혀 대답도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 대고 손만 비빈 것에 불과하다. 더 정확히는 점쟁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에게 빈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신자들에게조차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4:2,3)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과 계획을 이루려고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고 실제로 그래야만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본문에서 신자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우리 아버지여 …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으니 무엇인가 드려야 한다. '거룩히 여김'을 드리라고 했다. 값 비싸고 귀한 물건이나 신자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구태여 정성과 치성과 열심을 바칠 이유가 없다. 믿음과 중심만 바치면 되지 특별히 따로 바칠 것이 없다.

신자가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뜻이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자가 신자다. 하나님의 신자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을 신자가 알아듣도록 분명히 보이고 들리도록 밝혀 드러내어 주신다. 그래서 신자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우레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총천연색 영화처럼 환상으로 보여주는 신비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자라면 기도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자에게 보여 주신다. 성경 말씀이나, 마음속의 확신이나, 되어져 가는 환경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매일 만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특별히 신령한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불신자처럼 일방적으로 기도만 해 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 한 적이 없고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껏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이번에 이 일만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안 해 주시면 말 많고 재미없는 구역예배뿐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것도 재고해 보겠습니다."라는 불만 반 협박 반을 내비친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자는 기도한 후에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 때에 항상 기도하고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에서 방송을 보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안테나를 방송국의 전파 송출 방향으로 제대로 맞추는 것과 약하게나마 수신된 전파를 더 크게 늘리는 증폭기를 다는 것이다. 안테나는 무엇인가? 기도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 신호를 포착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안테나가 서있으면 그 전파가 잡힐 리가 만무하다. 증폭기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다. 기도를 통해 들린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간 시켜 준다.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하게 다 들을 수 없다. 기도 중에도 분명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듣기 위한 준비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뤄지는 법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둘은 신앙생활의 두 기둥 역할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못해 믿음조차 아니다.

거기다 요즈음 세태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라. 세상은 어디 가나 난시청 지역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하나님 말씀이 갈수록 기갈이 들고 있다. 참신자라면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정말 신자답게 제대로 살아 갈 수조차 없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신자가 아니거나 세상에서 가장 신경이 무딘 사람 둘 중 하나다.

자동 응답기를 달아 놓으신 하나님

미국에선 자동차의 뒷범프에 재치 있는 글이 쓰인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닌다. 어떤 스티커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발 집에 전화 좀 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주기도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며 그 자녀들은 수시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전화해야 한다. 그럼 자녀들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반드시 대답하기 마련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자동 응답기를 달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은 없는가? "지금 하나님은 출타 중이오니 용건이 계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돌아오는 즉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전화해도 녹음된 목소리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아예 전화 코드마저 빼놓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지 않았는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널리 인정받는 사역자 중의 한 사람으로 피터 마샬이란 분이 있었다. 미국 상원의 기도 담당 목사라는 직책을 맡았던 분인데 그가 젊었을 때 영국에서 겪었던 일이다.
노섬벌랜드라는 황무지를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지름길로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무턱대고 걷고 있는데 "피터"라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에다 대고 "누구냐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나 캄캄한 사방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몇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아주 다급하게 "피터"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 그만 넘어져 무릎이 땅에 닿고 말았는데 손이 닿아야 할 지점에 아무 것도 잡혀지지 않았다. 바로 채석장으로 사용하다 버려진 골짜기의 한 낭떠러지의 끝이었다.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바로 허공으로 곤두박질해 죽을 뻔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런 식의 간증이라면 수도 없이 많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자. 아주 신실한 신자로 알려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장마철에 하루는 기차로 국내 시찰을 하던 중이었다.

밤안개가 자욱한데다 비까지 휘날리는 밤중이었다. 기관사가 전방을 바라보니 뿌연 안개 속에 어떤 사람이 자꾸 두 손을 벌리고 서있지 않은가? 비키라고 경적을 몇 번이나 울려도 꼼짝도 않고 오히려 팔을 자꾸 더 흔들어 대고 있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서 철길을 살펴보았더니 아무도 없었고 대신에 바로 앞에 철교가 홍수로 떠내려가고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허깨비나 천사를 보았나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 커다란 파리 한마리가 기차 앞 유리창에 달라붙어 죽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까지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민22장)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당나귀, 파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신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이신다. 이 세상 전부가 당신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없다.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이든 언제든지 동원하실 수 있다.

이런 예화를 들으면 신자들은 항상 그 신비한 능력으로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된 결과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 두 가지 예화에서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다. 신자들은 주로 언제 기도하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겨야 하나님에게 911 비상 전화하듯이 한다. 이 두 경우는 신자가 하나님에게 비상 전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비상 전화한 것이다. 발람 선지자도 당나귀가 말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마샬이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건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쪽에서 911 긴급 전화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나아가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당신이 먼저 가셔서 악한 세력을 초토화 시킨 후에 신자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일은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나님이 자동 응답기를 달거나 전화 코드를 빼놓는 법은 절대로 없다. 도리어 그분은 신자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거시는데도 신자가 자동 응답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지금은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출타 중이오니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전화 하셨다면 자꾸 전화 거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먼저 전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말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스스로 전화 하실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는 아예 코드를 뽑아 놓은 지 오래다. 어쩌다 한 번 긴급 사태가 발생해야 다시

코드를 꼽는다. 그런데 사용한지가 하도 오래 되어 어떻게 전화 하는지도 잊었고 건전지 충전도 안 되어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한창이었던 냉전 시대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다. 소련이 미국의 턱 밑에 위치한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위장 화물선에 미사일을 잔뜩 싣고 가다 미국에 들킨 것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초강경수로 대응했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소련과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의 사태에 놀란 후르시쵸프 소련 수상이 양보하여 배를 철수 시키는 바람에 전 세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벗어났다. 그 이후 소련과 미국은 두 정상이 직통으로 통하는 전용전화(Hot Line)를 백악관과 클레믈린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냉전이 한창인데도 혹시라도 의사소통에 착오가 생겨 불의의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의 긴급직통 전화(hot line)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사용하는 공중전화(Public Phone)가 아니다. 우주의 근원되시며 그 심장부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빛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미소간의 직통전화가 쌍방 전화이듯이 하나님도 수시로 우리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 온다.

백악관과 크레믈린 간에는 하루 24시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한쪽이 전화기를 들면 다른 쪽에 자동으로 신호가 간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직통전화를 시험 점검한다.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선로에 고장 나 불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신자도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과 전용 선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전선에 녹이 쓸고 굽어져 불통되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적대관계인 그들도 아침저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먼저 911로 경고해 주시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 주시고, 잘못 구하면 지혜로 깨우쳐 주시겠다는 데도 전화 코드를 빼놓으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배짱인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주는 복도 차버리겠다고 덤비는 꼴이다.

당신은 참 신자인가?

신자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할 까닭이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좋아서가 아니다. 그 분이 신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가 찾기도 전에 그 분이 먼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수시로 들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복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것이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몰라서다. 즉 지난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 본 횟수에 비해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해 봐야 별 볼일 없다고 지레짐작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살 수 밖에 없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죄만 짓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평생을 도나 닦으며 지낼 수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내려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 오셨다. 절대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 지키는 것만으로 신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자신해선 안 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음성이 설교로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찬송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심지어 헌금하는 중에, 아니면 주는 것 하나 없이 꼴 보기 싫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신자인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보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불신자도 그렇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함을 아는가? 불신자도 인정한다. 예수를 교리적으로 믿는가? 그분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과 당신만의 비밀이다.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아이큐 세 자리만 되면 한두시간 안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지혜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참 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는가?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위로보다 나를 더 든든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확신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 직통 전용 전화가 가설 되어 있는가? 그 전화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만 전화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심심찮게 하나님 쪽에서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말라.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듯이 환난이 끝나는 것만 기다리다 보면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기도자는 이내 지쳐 떨어진다. 여러분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감할 수 있지 않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 보라. 또 다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 주리라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대신에 하나님은 신자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위로, 소망, 인내, 용기, 담력,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나아가 먼 장래의 크고도 신비한 비전을 보여 주신다. 그것이 참된 은혜이자 실질적인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매일 매일을 기적 같은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채워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여러분의 전화기에 가설해 놓은 자동 응답기를 제거하라. 직통 전화(Hot Line)를 개설하여 아침저녁으로 점검해 보라. 여러분의 인생이 당장 달라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왕 노릇 하는 신자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는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없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으며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 자체를 설명해 놓은 구절과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로 나눠진다. 성경 66권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한 책 한 권을 들라면 로마서를 꼽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을 꼽아 보라는 뜻은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한 마디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알다시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해, 13절 말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으로 마친다. 신자들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는 사실 기도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믿음의 크기, 은혜를 체험한 종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할 당시의 형편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실망과 의심과 심지어 불신앙으로 나와 기도할 때도 많다.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된다고 가식적으로 찬양한다면 더 문제다. 차라리 찬양하지 않더라도 의심과 불평을 지닌 체 있는 그대로의 심경으로 기도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도가 대화라는 측면에서 따지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경배로 마치는 것은 인사말과 마침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자 모두 필수적으로 항상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이것, 저것을 대신 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신자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정작 간구해야 할 내용은 10절에서 13절 중반 까지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내용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맨 처음이다. 중간이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에서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도할 때에 가장 급한 것, 가장 소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아뢰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자연히 그렇게 된다. 당장 암에 걸려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웃 집 사람과 관계마저 잘못되었다 치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며 또 그것을 언제 아뢰겠는가?

나라의 구성 3 요소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했던 기도의 핵심은 첫 구절 "나라이 임하옵시며"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천사처럼 이 자리에 날아와서 암을 낫게 해달라는 말인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판 성경은 오래 전에 번역된 것이라 고어체, 한자체가 많아 요즘 사람들에게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간혹 있다.

이 구절은 영어로 보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단 두 마디다. "Kingdom come" -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한다는 뜻이다. 최근의 한글판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현대인의 성경),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한글 킹제임스 판)라고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다.

말하자면 신자가 암이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만 한다. 죽고 난 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실현될 천국은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천국이라면 어떤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가 고갱과 타히티 섬 같은 모습일 것이다. 시원한 야자수 그늘 아래서 툭 트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하는 일 없이 과일 주스를 마셔가며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의식주 문제에 하등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보다 더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의식주 상태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천국이 아직 안 된 것이다. 월 2-3천불 수입으로는 평생 가도 요 모양 요 꼴을 면할 재간이 없으니까 월수입이 최하 7-8천불이 되면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솔직히 우리 모두의 기도에 뜨겁게 시작하는 첫 마디가 돈 달라는 것 아닌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과 구실만 다르지 전부 그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는 남태평양 휴양지 섬에 여름휴가 가있는 모습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토, 주권, 백성 3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토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를 말한다. 알라스카가 미국 본토와 는 캐나다로 분리되어 있지만 미연방정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영토다. 한국은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발동되는 부분은 한반도의 남쪽 반이다. 나라가 성립되는 가장 기본은 영토가 있어야 한다.

주권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며 누가 관리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왕이 최고 권력을 갖고 혼자서 통치하는 나라는 왕국이다. 대신에 민주공화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부라는 정부 체제가 그 권력을 대신 집행하지만 분명히 나라의 통치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민 와서도 이민법 규정의 자격에 합당하며 미국 헌법대로 따르겠다고 하면 미국시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백성은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그 나라가 규정하는 주권의 통치대로 기꺼이 따르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자칭 왕, 대통령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영토나 주권이나 백성 중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비추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지리적 영역이 생기게 해 주시고 더 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으며 그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생기게 하시고 방방곡곡에 땅 끝까지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이 불리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첫째와 둘째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신자가 구태여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토를 따져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닿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나님만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한 권세는 어디라도 미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8-10)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계신다.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세상만사의 주권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게 속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계1:8)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영토와 주권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문제인가? 나머지 세 번째 국가 구성 요소인 국민이다. 지금까지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이자,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땅과 주권은 확보되어졌다.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는 십자가 보혈로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천국의 헌법인 성경이 완비 되었으며, 그 나라를 다스릴 힘으로 성령님까지 와계신데도 천국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꺼이 소원하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신자더러 바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가?

신자의 생각에 자기의 가정이나 직장이 아직 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삶과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믿는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된 원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천국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쪽에 둔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천국이 실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 쪽에선 국토와 주권 모든 것을 준비 해 놓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마실 것을 이미 넘치도록 주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전혀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전 아프리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남한에서 버리는 음식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다. 인류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인구의 10배 정도가 살면 적합한 크기의 땅이라고 한다. 미국은 아직 9배나 여유가 더 있다.

하나님이 100% 다 주신 정도가 아니라 1000%를 주셨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서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차지하려니 갈등과 분쟁이 끊일 새가 없을 뿐이다.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 치고받고 하느라 천국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안 해 주셔서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 쪽에서 이미 천국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 와 살 백성이 없다. 대신에 빵 한 조각을 두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아귀다툼 하듯이 싸운다. 하나님이 1,000%를 주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도 남아 돌 정도라는 것이다. 사람 열 명에 빵 100개를 준 데도 싸운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더러 왜 천국을 실현시켜 주지 않느냐,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항상 불평이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 주일 설교를 했다. 한 교인이 감동을 받아 목사님을 찾아가 "어제 천국의 영광에 관한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저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목사님이 "마침 정말 좋은 천국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가면 허술한 판자 집이 한 채 있는데 아주 가난한 우리 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인이 병을 앓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린 후 그 자매님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보상해드리지요."

다음날 그는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다. "목사님. 천국을 보았어요. 제가 시편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는 15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사1:2-4)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없다고 한탄하셨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나귀나 소보다 못하다고 하셨다. 누구더러 이런 한탄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의 대상이었다.

왜 그러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크나 큰 기적으로 차지하게 해서 영토로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명시 해 놓은 헌법인 율법을 베푸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데도 그들마저 딴 짓 하느라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신 것이다. 그 땅에 다시 나의 왕국을 건설해야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없으니 누가 내 대신 가서 나를 알게 하고 가르치겠는가? 누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에게 울부짖을 것인가? 그 애끓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도래해 있는 데 그 나라의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성해져 내 삶을 천국처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 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주민 번호 1호로 등록 하겠습니다"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것도 암이 낫게 해 달라고 생명 걸고 울부짖듯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뜨겁게 말이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이다.

정신 병원에서 왕 노릇 하는 신자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 흘러넘친다. 한국만 해도 인구의 1/4이 기독교 신자다. 가는 곳곳마다 붉은 십자가가 달렸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왕국처럼 되어졌는가? 구태여 한국 전체를 볼 것도 없이 신자의 가정과 직장이 천국처럼 보이는가? 아니 신자의 개인적인 삶과 인생이라도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가? 전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자들이 몸은 교회에 출석해 있어도 마음은 정신병원에서 혼자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정신병원의 자칭 왕들처럼 머리속에 자기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많지만 대부분이 “이 번에 꼭 이것, 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되 반드시 이때까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표현만 존대어를 사용했다 뿐이지 내용은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종이다. 자기가 영토와 주권의 경계를 다 정해 놓았고 백성도 자기뿐인 일인 왕국이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 나라의 백성이 된 꼴이다.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는 성전 마당만 밟았다지 않는가? 자기가 이해하고 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그곳 까지 밖에 미치지 않은 것이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혹 생각이 나면 힘들어 하는 이웃집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하라는 것이다.

신자는 산 위의 판자집의 아파 누운 자매를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천국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장 뜨겁게 정말 자기 암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웃을 위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싫컷 해놓고 끝 부분에 마지못해 갖다 붙이는 장식품이 절대 아니다.

나아가 첫째 둘째 기도를 정말 진정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면 사실 세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채워 주신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다. 진짜로 인간끼리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도 먹고 마시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남아돌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신자더러 "나라이 임하옵시며" 바로 앞에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였지 않는가?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확실히 알겠는가? 나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기도할 내용은?

스스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라. 만약 지금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을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뜨겁게 기도할 것인가? 일부러 고상한 기도 제목을 찾거나 가장할 필요 없다. 정말 혼자서 속으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

돈을 더 달라는 기도인가? 하셔야 한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집을 사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는가? 뜨겁게 간구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기 원하신다. 몇 가지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전부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된 것뿐인가? 그것대로 좋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무능한 존재다. 또 당장에 그런 급한 일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할 엄두라도 내겠는가?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라. 도저히 돈이 없어 정말로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가? 눈물과 한숨마저 완전히 말라붙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 계심조차 의심하게 되는가? 그 의심이 절대 불신앙도 죄도 아니다.

대신에 그런 마음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 놓되 천국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갖고 아뢰어 보라. 말하자면 돈 달라고만 떼를 쓰지 말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어 보라.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바로 그 곳이 천국이다. 내게 돈을 더 달라는 소원과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와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돈을 버는 방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작동되는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으로만 벌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그 번 돈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가 있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선한 곳에 사용할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 되며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수백만 불, 수천만 불도 좋다. 얼마든지 부르짖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한다면 무엇이든 구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곳간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내 욕심과 계획뿐이면 그곳은 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병원에 있는 것이다.

기도해서 이전 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재미를 두고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신자의 개인적 욕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면서도 처음 몇 번은 속는 척 해 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해서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뜻이다. 모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게 하고 그 맛을 체험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만을 소원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착각한다면 바로 그 만한 지옥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뜻이 발휘 되는 영역 밖에서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바로 그곳이 지옥이다. 불바다에 귀신이 설치는 곳만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은 다 지옥이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았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체험을 했다면 그 은혜를 주위에 나눠주지 않고는 못 배긴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스스로 찾아 간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의무감만으로 그저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핑계 되지는 않는다. 암을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열정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평생을 두고 빌게 된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기도이자 “나라이 임하옵시며”의 참 뜻이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6:10)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 교훈과 고매한 사상이나 종교적 계명에 그치지 않고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며 새 생명을 주신다. 이전에 갖고 있던 약점과 허물 한두 개를 고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단어 하나하나의 뜻, 용법, 순서 등이 반드시 그 형태로만 말씀 되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있다. 그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여 인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를 증거하기에 확실하여 일점일획이라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

본문에도 바로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의 형식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반대로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뜻이 먼저 이뤄진 후에 그 뜻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빌라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다들 잘 아는 뜻인가? 기도란 마땅히 인간이 땅에서 아뢰는 대로 하늘에서 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 신자더러 기도를 부탁하는 셈이지 않는가? 또 그러려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기도자로 미리 알게 한 후에라야 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거기다 문제는 인간이 그분의 어떤 뜻이 언제 어떻게, 그것도 "하늘에서", 이뤄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 않는가? 예수님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기도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지 않는가? 아니 자기 계획과 뜻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묻는 것조차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개의

경우 무엇이든 기도하여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된 한참 뒤라야 겨우 그분의 뜻을 깨달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지 않는가? 믿음이 조금 나은 신자라 해야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혹은 일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눈치 채는 정도이지 않는가?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이뤄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 요컨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권면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도의 본질

가장 기본적인 정답은 이미 나왔다.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이 땅에서 소원을 갖고 하늘에다 대고 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심사해서 들어 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반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을 향해 인간에게 비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빌 수는 없다. 하나님이 신자를 향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소원이란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성취 안 된 어떤 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 당시까지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입장에선, 아무리 심오한 철학자나 경건한 종교가라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비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빌 것이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감히 절대자를 불경스럽게 대할 수 없고 두려워서라도 그런 생각을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진짜 뜻을, 말하자면 이런 불경한(?) 내용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보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들이 기도할 줄 모르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기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주려는 뜻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1-33)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늘에다 대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 끝에 빌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꼭 현실의 물질적인 문제라서 빌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주기도문의 본문 다음에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11절)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6: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 다음에는 먹을 것을 구해도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여전히 현실에서 궁핍하고 힘들기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다. 하늘에다 대고 빌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는 이방인과 달리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마음에는 돈 달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 종교적 행사, 영적으로 경건해지는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리가 없으며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31-33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정작 다른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신자들은 이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성취시켜야 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하늘에서 땅을 향해 빌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단순하게 무엇을 먼저 혹은 나중에 구하거나 또 경건한 일만 빌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도에 대한 근본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해 빌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완악했던 불신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 "신실한 신자인 형이 크리스천 친구들과 함께 동생인

내가 예수 믿도록 몇 년 전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 때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갈수록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괜히 심통이나 신경질을 부렸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괜히 형이 의지력이 약하니까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아무 것이나 붙들려는 부질없는 짓이지'라고 매일 형의 신앙을 조롱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 문이 열리고 있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이나 나의 지성, 감성,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깨우쳐 주는 것을 느꼈다. 세상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내 속은 텅텅 비어져 갔고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꾸 다른 길로 빠져 들고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형 모르게 혼자서 하나님과 밤마다 씨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어느 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여기까지는 중생 때에 누구나 겪는 체험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금 바로 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렸다. 나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신경질을 부리며 형을 놀렸는데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버티어 보았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 음성이 도저히 거역 못할 힘으로 내 심령을 밀고 들어왔다. 할 수 없이 형 방으로 들어가 '형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워낙 그 때까지 완악하게 굴고 세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나는 형이 내 말을 전혀 믿지 않거나 깜짝 놀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놀란 것은 나였다. 형이 정말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럴 줄 알았어.'라고 짤막하게 대답한 것이 그가 보인 반응의 전부였다."

위의 예를 든 이유가 꼭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만이 아니다. 온전한 신자라면 구태여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신에 신자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자가 나름대로 짐작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결과마저 불러 올 수 있다. 간혹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고 겁도 없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신자에게 특정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이다.

기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주체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성령이 신자더러 기도하라고 강권하시고 성령의 인도 하에 기도하므로 신자의 생각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자연히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는 자신의 소원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반드시 신자를 통해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신자를 슈퍼맨으로 만들거나 실력을 뛰어나게 하고 일류대학을 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게 해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그 기도마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연히 예를 든 동생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내어 준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는 작업이다. 향방 없는 달음질을 하고 허공을 치듯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며 방황하는 인생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기 원하신다. 이 땅에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하고도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로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신자를 통해 당신의 권능과 은혜가 신자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고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의 크기, 열심의 세기, 뜨거운 가슴의 깊이를 재어 보아야 한다.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한 표현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도 이상할 것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정말 안타까이 찾고 계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실 만큼 애절하게 이 땅을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 그 애절함, 그 안타까움이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에 옮겨 담아진 것이 신자의 기도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예의 그 형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한 것이 자기 신앙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다. 몇 년이나 끈질기게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되리라 확신했기에 하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를 뜨겁게 한 정성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어서 특별 취급 해주신 것이 아니다.

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고 그때까지 형한테 대들고 놀렸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형에게 그 즉시 찾아갈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본인이 고백했듯이 자기는 그럴 마음이 꿈에도 없었고 또 성령의 음성에도 여러 번 거절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의 애절함이 성령을 통해 그를 강권했다. 하나님이 동생을 향해 하늘에서 비신 것이다.

그때까지 쌓여있던 형제간의 모든 불화와 앙금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동기간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뜻이다. 형은 동생이 아무리 조롱해도 단 한 번도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둘 사이에 틈새가 벌어졌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던 동생 혼자서 형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형과 형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것뿐이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전혀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품안으로 되돌려 놓았다. 죄악과 세상과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기백성을 되찾아 오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형의 기도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하면 축복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네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그분의 마음에 너희 마음을 연합해 보려고 소원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더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양 착각하고 사는 자들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것을 알았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저들이 수준이 낮고 어리석어 보이더냐? 아니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겨지더냐? 바울 사도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후11:29,28)는 고백이 너에게도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느냐?”

나아가 “네가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진정 천국이라고 확신하느냐?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느냐? 왜 천국을 선포하지 않느냐? 왜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 그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 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는 의미를 오해 말아야 한다. 귀신 들린 무당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강제로 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억지로 하게하는 법은 없다. 오직 신자의 자발적이고도 기꺼운 순종만 원하신다.. 또 단순히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다.

기도자가 우선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마음 문을 열라는 것이다. 본인이 동의하고 간절히 소원해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더 충만히 역사케 하여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담아줄 수 있다. 또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아져야만 그분의 구체적인 생각을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성령의 존재와 그 임재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좋아 하는 것 나도 좋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나도 똑 같이 저주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나도 원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것 나도 안타까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 세기와 열심까지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울고 하나님이 한 숨을 쉴 때에 같이 힘들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무한하고 따뜻한 가슴의 크기와 그 뜨겁고 힘찬 심장의 박동 수만큼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이 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행 26:28,29)

바울이 유대인의 모함으로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당시의 로마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다. 바울은 형벌을 감면해보려고 자기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경위를 간증하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적은 말로 권한 것은 우리 말 뉘앙스와는 달리 원어로는 "힘을 실어 아주 강하게 권했다"는 뜻이다.

언뜻 보면 왕의 말이 "네가 말로 꾀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 모양인데 내가 함부로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라는 의미로 들린다. 예의 동생이 형을 반발하며 놀려 먹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진전된 긍정적인 뜻이다. 바울은 인격적 관계에 입각해서 왕의 허망한 심령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이 왕에게도 전해졌던 것이다.

바울은 마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나, 술주정뱅이 동생이 술에 취해 낭떠러지 위를 걷고 있는 것을 쳐다보는 형의 심정으로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했다. 아그립바의 말은 자칫하면 바울의 전도에 내가 넘어갈 뻔했다는 뜻이다. 그는 바울의 호소에 담긴 애절함에 어느 정도 마음에 찔림과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지, 저 길은 흑암과 죄악과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빛과 거룩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쪽인데…" 한마디로 바울은 왕을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 서있는 자로 본 것이다. 한 순간만 더 두고 보다가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질 것이 너무나 환히 보이는데 어느 누군들 애끓는 심정이 안 되겠는가? 비록 자기는 죄수이고 상대는 자기를 심판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왕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동생이 아무리 조롱해도 형으로선 동생이 살고 죽는 문제라 그 조롱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인간적 생각만으로는 "자식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긴 왜 해?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누가 강요하나? 다 제 잘되라고 믿으라는 것이지"로 그치고 만다. 그러나 동생이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강권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는가? 나아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령의 간섭으로 형에게 기도를 강권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는가?

아그립바 왕의 진심 반, 조롱 반의 힐문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렇게 결박한 죄수의 신분 외에는 자기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즉, 기도한다고 했다. 왕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족하면 아무 걱정 없어지고 평강이 따르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이 없다고 말한 셈이다.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내가 당신 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소. 감옥 안에서 내 삶이 궁정 안의 당신 생활 보다 백배 낫소.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당장 이 자리에 서시오.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쇠사슬만 묶이지 않았다 뿐이지 죄수인 나와 다름없소. 괴롭고 힘든 세상의 노예일 뿐이요. 누가 진짜 참 인간답게 사는지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갖춘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상하고 경건한 기도만 하려 든다. 한 달 수입을 만 불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무슨 큰 죄나 짓는 듯한 기분이다. 신자는 반드시 가시밭길과 궁핍을 자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만이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양 착각한다. 신자는 그런 가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참 고난에 동참할 만한 실력과 믿음을 갖춘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전해져 오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기도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작업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애끓는 심경이 내 입술을 통해 세상과 죄악과 사단 앞에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신자가 기도할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급하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돈은 말라가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 잊고 있던 친척, 친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기도 중에 잡념이 생긴 것은 아니다. 돈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잡념이 생길 리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이 가장 잘 집중 되는 것이 바로 돈 문제 아닌가?

그보다는 신자인데도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신자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성령으로 당신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옮겨 심어준 것이다.

물론 기도가 끝날 때 까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꼭 성령의 간섭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계속 마음의 부담이 되어 남아 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거나 한 번 찾아가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다. 재정적 필요가 아니라도 의논, 위로, 최소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만 하거나, 같이 함께 있어만 주어도 힘을 다시 얻는 일이 그에게 발생해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친구일 때가 대부분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풍족해 평소 저 집만큼은 걱정거리라고는 없을 것이라고 부러워했던 바로 그 친구다. 왕 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더 부자가 되어 있지만, 사는 꼴이 영 말이 아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있고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을 닦고 보아도 없고 예수님은 꿈에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신자가 찾아와 도와 준 아주 작은 정성, 자연스레 전해진 위로의 말 한마디, 간단하게 해 준 기도만으로, 이때까지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위로나 도움보다 더 큰 힘을 얻는다. 예의 동생 같이 완악하여 평생가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한 마디 말에 그대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꿈도 꾸지 않았고 평소 때 아예 담을 쌓고 지냈거나 거의 잊고 있었던 자다. 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대신 한 것뿐이다. 갈급하고 애통해 하는 그 친구의 심령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신자 친구의 마음에 전해진 것이다. 심지어 신자가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말이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불신자 친구에게 신자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한 말 그대로다. “단칸방에 사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자는 기도가 달라진다. 참된 기도를 하게 된다. 자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것에 갈급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찾아가게 된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으로 상대의 영혼은 소생되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 그 인생이 변화된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신비한 것이 못 된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덤덤하게 반응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킨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바꿔 말하면 신자가 세상을 향해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세상에서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빼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고 있다.”

천사들을 실컷 부려 먹으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당신의 자녀는 일등이 될 실력이 있는가?

신자가 불신자와 달리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맛보지 못한다.

신앙생활이란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그 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혼자 스스로 수양하고 깨우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도덕과 철학이다.

물론 기독교도 구원 이후에는 도덕적 삶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그 보다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는 생활이 더 우선이다. 도덕적 삶과 기도하는 삶, 두 종류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서 그런 차등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도덕적 삶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가능하다. 아니 인간 사회에서 통하는 윤리만 완전히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충분히 구원 받을만한 의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삶은 인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기에 신앙생활에서 더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말했듯이 인간 스스로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효과도 아주 일시적일 뿐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분과 교제 동행하지 않으면 온전히 선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 도덕적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이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최근 돌아가는 세태를 보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정말 겁도 없이 설치는 꼴이지 않는가? 꼭 죄악이 만연하고 영적으로 이상한 풍조 때문만은 아니다. 신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이 얽매이는 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미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젊은이들에게 무한 경쟁시대가 되었다. 반반한 직장조차 잡을 수 없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청년 실업이 모든 나라에서 일종의 구조적 병폐가 되었다. 앞으로는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똑똑해 최고가 될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기도란 세상 사람은 갖지 못하고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다. 우리가 저들보다 현실적 실력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도만이 우리가 저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세상보다 앞설 수 있는 무기다.

세상만사는 절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요인들로 진행되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의 영적 파워가 이 땅을 주관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말씀의 뜻은 영적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해 간다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는 너무나도 대단한데 신자들이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를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 즉 편지나 전화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일단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급하고 억울하고 골치 아픈 사정을 다 전해 놓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정도로 그친다. 기도의 역할을 단지 영적인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으로 제한시켜 버린다.

바사국 군대의 방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단10:12-14)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도 그 곳에 총리가 되어 남아 있었다. 고레스 왕 3년에 세 이레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힛데갈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언을 받는 장면이다. 함께 한 사람들은 사자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빛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떨며 숨었다. 그 사자가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11절)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 즉 다니엘이 금식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들으신바 되었고 천사들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다. 요컨대 하나님이 즉시로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바사(페르사)국 군대가 와서 막았다고 한다. 바사 제국의 군대가 하늘까지 올라가 막았다는 것이 아니다. 바사국 군대로 상징된 사단의 부하들, 흑암의 세력이 막았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러 와서 함께 싸우느라 지체되는 바람에 이제야 왔다고 한다. 얼마 동안 지체 되었는가? 세 이레 즉, 21일이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참 대단하지 않는가? 기도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단지 통신만 하는 정도가 아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에게 일을 시켜 먹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늘에서 영적 전투를 해주시고 그러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세 이레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천사와 사단의 싸움이 21일 간이나 지속되었다면 그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동안에만 그 전쟁이 있었는지 이상하지 않는가? 기도 중에 더 일찍 끝낼 수 있었거나 기도 마친 후에도 계속 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가 영적 전투라는 면에서 신자들이 흔히 오해 하는 부분이 있다. 기도를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준비라고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기도해야만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칠 수 있다. 기도로 무장한 후 현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다. 영적 전투를 위한 워밍업이나 훈련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선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군병인 천사와 사단의 졸개들이 격렬하게 싸운다.

영적 바겐세일

이 기사를 보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을 받았으니 나도 특별 작정 금식기도를 해야겠다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이런 저런 문제들을 금식 기도하여 응답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앞서면 성경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 금식 기도가 특별 대청소 기간이 아니다. 우리 영혼의 창고에 먼지 쌓이고 곰팡내 나는 오랜 상처, 곪아터지기 일보 직전의 잡동사니를 꺼내서 몽땅 떨이 세일 하듯 하나님께 팔아 치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 기간과 하늘의 전투의 기간이 일치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했다는 뜻이다.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다니엘의 마음에 심어 주었다. 다니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간 동안 직접 전투를 벌였다. 신자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신자더러 3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시켜야 할 만큼 애타하는 하나님의 심령이어야 한다.

“그 때에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발보스내와 그 동료가 다 나아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 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스 5:3-5)

바사 제국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 온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 시키고 성전 건축도 허락했다. 그래서 2차 귀환 시에 돌아 온 에스라의 지휘 하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의기소침해진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금식기도 한 것이다.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요즘 식의 교회당 건물 짓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자 전부였다. 번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번제로 하루를 마쳤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배교로 흐르는 바람에 70년간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다. 바벨론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는 전혀 없었다.

거기다 자기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방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큰 영적 부흥을 체험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한 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몸소 실천하겠다는 뜻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훼방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다.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시키고 대신에 당신은 하늘에서 전투를 직접 담당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 육년 아달 월 삼일에 전을 필역하니라"(스6:1,7,15)

신자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역사

성경은 옛날이야기 책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니엘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려니 여기고 그쳐선 안 된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에 일부러 참가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멀리 떨어진 조국을 향해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교포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자리 잡아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매일 고국을 향해 기도한 것이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및 경제 환경과 기독교 신자의 박해 그에 반해 풍족한 남한의 도덕적 해이와 여전한 지역 갈등 등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무엇보다 교회와 신자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부정부패는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강단은 기복신앙으로 너무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생겨 하루 속히 십자가 복음을 쉽게 듣고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미국 교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금식 기도하면 한국 사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한을 가로 막는 휴전선이 뚫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곳곳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고르바초프의 탈냉전 정책과 공산주의의 경제적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동독 시골 교회의 이름 없는 어떤 목사가 조국이 자유화되도록 기도를 시작했다. 곧이어 열 명 남짓의 성도들이 호응하였고 주기적인 기도모임을 가진 것이 발단이 되어 전국적인 영적 부흥으로 번졌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 것이다.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어 동독을 뒤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하늘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려 이기도록 함으로써 수십 년간 막혔던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죄악과 분쟁으로 타락과 절망의 나락에 빠졌지만 순간적으로 희망이 되살아나고 빛이 들어오는 전환점들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인간들이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마치 여리고 장벽이 무너지듯 악의 세력이 와르르 붕괴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먼저 있었다. 또 그 영적 부흥 뒤에는 신령한 신자 몇 사람의 기도가 발단이 되지 않은 적이 결코 없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신자의 무릎에서부터 기록한다. 신자의 무릎이 헤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와 사망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역사는 정치가, 사상가, 사업가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자만이 역사의 참 주인공이다.

1905년 영국 웨일즈 지방 일대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이반로보트라는 한 광부와 그 친구 몇 명이 모여 몇 주를 회개하며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후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경기도 아닌데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 도박장등에 약속이나 한 듯이 손님이 일시에 뚝 끊어졌다. 유치장은 텅텅 비어져 갔고 경찰이 할 일이 없어졌다. 큰 조선소 직공들이 회사 몰래 훔친 철강재를 한 사람씩 자발적으로 다시 회사에 갖다 놓아 그것만 보관하려 큰 창고를 하나 지어야 했다.

이 청년들이 술집을 돌아다니며 “회개하시오 천국을 믿으시오”라고 외친 적이 없으며 경찰서 유치장을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 준 적도 없었다. 오직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드린 것뿐이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술집과 도박장 등에 자리 잡고 왕 노릇 하던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것이다. 그곳을 출입하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그 당사자들도 모르게 미혹시켜 노예로 만들었던 죄의 사슬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끊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다.

그 부흥은 그 지역 전체에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누구도 계획과 일정을 세워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없었다. 하늘에서 성령의 열풍이 내려와 모든 사람의 영혼에 불어 넣어졌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죄에 찌들고 사단에 눌렸던 그들의 인생을 단번에 뒤집어엎고 변화시켰다. 그래서 본인들도 구체적으로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쾌락과 죄가 싫어진 것이다. 사단의 더럽고 추한 실체를 또렷하게 눈으로 볼 줄 알게 된 것이다.

천사를 부려 먹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1:14)라고 선포했다. 예수 믿은 신자를 하나님이 귀엽게 여겨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보내 주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가 된 후 수호천사가 어떤 환난에도 지켜주어 병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재수 없는 일은 절대 안 생기는 그런 법은 절대 없다.

분명히 "성도들이" 천사를 부린다고 했다. 또 그렇게 되려면 신자에게 보내질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수호천사는 신자 곁에서 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성도가 천사를 부리려면 신자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천사는 그 시킨 일을 수동적으로 따른다는 뜻이 된다. 이 둘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수호천사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그 일을 위해서 미가엘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실제로 흑암의 세력과 싸운다는 뜻이다. 또 그것이 바로 다니엘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은총이 아니다.

예의 웨일즈 영적 부흥은 전 사회적인 정화운동으로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시작한다고 해서 쉽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정치가, 사상가, 도덕군자, 목사가 나선다고 될 일인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전 사회가 자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참하는 일은 하늘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쯤은 불신자라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 기도의 주를 이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병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자식은 공부 잘해야 하는 수호천사 식의 기도이지 않는가? 무당과 점쟁이에게 찾아가 요구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부르는 절대자의 이름만 천지신명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더하시리라고 하셨지 않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정작 빌어야 할 것을 빌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기도란 신자들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 열심과 정성을 바쳐 대박을 터뜨리려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도 아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 자체다. 필요하다면 웨일즈의 청년들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한다.

"더럽고 추하며 썩어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의 빛으로 채우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만 두었다간 사단의 천지가 되겠습니다. 죄악이 들끓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썩어져 가는 냄새가 진동하여 한시도 호흡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땅을 살려서 저희도 숨 쉬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신자더러 꼭 전 세계를 책임지거나 남북한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모두 솔직히 다니엘만큼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다. 다리오 왕을 제외한 누구에게라도 절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해왔던 것처럼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 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할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그러나 신자 자신의 인생, 이웃, 가정, 직장,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거룩해지게 해달라는 즉,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안 아프고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식의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매일 그것만 주문처럼 외우는 짓은 그만 두라는 것이다. 대신에 부부 사이와, 부모자식 간에, 직장 동료나 모든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주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 체면, 위신,

고집, 정욕을 앞세우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 받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쓸 데 없는 짓을 위해 기도를 동원하지 말라. 가장 먼저 자신부터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세상을 향해 빨리 뛰어 가는 마음,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의 근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어 깨끗케 해달라고 울부짖어라.

자식을 위해서도 그 출세보다도 더럽고 악한 세력이 접근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이 수호천사처럼 지켜 달라는 기도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스스로 죄악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 같이 신령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주위에 예수님의 고귀한 빛을 비추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맘껏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가는 곳 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심정과 열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 나머지 질병, 공부, 돈은 전혀 문제가 안될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를 굶기시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신자가 진정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의 현실적 문제를 일일이 책임져 주시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자기 인생이 흔들리거나 괴로워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일부터 하신다. 사자 굴이나, 극렬한 풀무 불 가운데 던져져도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로 자라게 해주신다.

부모부터 자기 자녀의 인생에 언젠가는 드러나고야 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가릴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또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도록 가장 먼저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신자가 세상이 못 갖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보다 앞서 나가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애절함,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싸움이다. 신자더러 "네가 이 땅을 끌어안고 눈물로 부르짖어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네 대신 직접 싸워줄게"라는 약속의 보증이 기도다.

신자라면 정말 세상 사람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갖고, 최소한 확신하고서 기도해야 한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실컷 부려먹어야 한다. 그러면 이름 없는 목사와 성도들 몇이서 베를린 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 같은 역사가 오늘 날도 틀림없이 일어난다.

카터 대통령의 별난 식사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7:11)

코드 성경과 오리지널 성경

한국의 정치판은 정책대결이 너무 드물다. 치사하게 서로 말꼬리만 붙드는 싸움이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 또 이런 풍조가 정치판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적 인간관계에마저 널리 퍼져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말은 그 내용이야 어찌 되었던 아예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코드가 맞는다는 말이 한국 사회의 최고 화두가 되었겠는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한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 코드에 맞는 말만 찾아서 들으려 한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묵상할 때에 이 구절에 이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혹시 가파른 산 정상을 올라가다 중턱에서 잠시 한 숨 돌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가? 이 구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싸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시험과 죄악을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 반면에 본문은 유일하게 세상의 물질적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셨다.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교회가 텅텅 비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신나게 놀아도 된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다.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본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가 너무 쉽게 그 뜻을 간과한다. 말씀의 핵심은 놓치고 자기 기분과 생각을 앞세워 말 꼬리만 붙들기 때문이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본문에서 솔직히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생각이 미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함께 외울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가장 큰 힘이 실리는 구절이 무엇인가? 대부분 "양식을 주옵시고"일 것이다. 그럼 무엇을 놓쳤는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이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인데도 말이다.

언뜻 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 바로 자기 코드에 맞추어 성경을 읽는다는 반증이다. 곳간에 넘치도록 채워 준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자손이 하늘의 뭇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같은 구절들은 눈에 속속 들어온다. 아니 일부러 그런 구절만 골라 본다. 그런 구절들만 모아 '코드 성경'이라고 이름 부쳐 팔면 당장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 신자가 갖고 있는 코드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지널 성경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따져 보기로 하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선 양식을 구하되 '오늘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미래를 위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금식(16-18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19-24절)는 말씀을 하셨겠는가? 나아가 왜 6:34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결론지었겠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변개가 없으시다. 절대 말을 중도에 바꾸지 않고 말꼬리도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이 양식과 재물을 구하고 쌓아두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하여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모르니 믿을 것이라곤 내 곳간에 쌓아 둔 먹을 것과 금고 속의 돈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곳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만 들끓을 뿐이라고 하셨다. 너희들이 정작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지하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결국 재물을 의지한다는 뜻이 되므로 그것마저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 세끼 먹는 것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삶의 전부였다. 오늘날 같이 더 풍족하고 안락한 내일을 위해 비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였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도 간구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문제는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빈다는 것은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 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내일을 대비한다는 것은 벌써 생존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내 실력과 소유를 키우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내일을 대비해" 기도하는 것과 "내일을 주님의 손아래 맡기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 내일을 대비하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 한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내일은 재물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심지어 완전히 현실적으로 파산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다.

나아가 매일의 생존을 위해 빈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싸움이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켜 주시는 그 분을 놓치면 바로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은 흑암의 세력과 또 그에 기인하는 죄악의 훼방뿐이다. 재물을 쌓아도 기대했던 안락과 평강은 없고 생기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초조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도 그분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양식을 달라는 간구의 의미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본문에서 '오늘날'보다 신경을 더 쓰지 않는 단어가 있다. 외울 때마다 건성으로 입에서 붙어 나오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신자의 코드 성경에는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다. 주님은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의 경구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신의 유익과 안락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고생하나. 다 토끼 같은 새끼들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잘 먹이려고 하지. 내 앞으로는 돈 한 푼 안 쓰고 10년 넘도록 양복 한 벌 안 사 입고 작업복으로 버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공동체인 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맞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가정은 공동체가 아니다. 가족은 나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의 분신이자 나의 생명 그 자체다.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되면 대신에 목숨 내놓지 않을 부모는 드물다. 가족은 피를 함께 나눈 사이이므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섬김은 자연 발생적이다.

공동체란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한 가지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며 섬기기 위해 모인 단체다. 아버지가 가족 부양하느라 양복 사 입지 않은 것을 두고 구태여 희생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20년간은 마누라와 아이들 옷 사도록 양보 즉, 희생했으니 이번 20년은 내가 사 입을 차례라고 고집할 수 있는가?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축복이다. 불신자도 자기 가정은 돌보고 책임진다.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불신자의 가정이 세상에서 윤리적 관계라면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다.

하나님이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양육하며 함께 여러 일로 골치 썩으며 살게 하신 까닭은 자기 가정이라는 공동체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공동체에 속할 때에 실현해야 할 기준과 모범을 먼저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이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법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몸에 밴다. 가정에서 배운 사랑하는 능력과 기술을 다른 곳에 가서 적용해야 한다.

가정 다음에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조건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는지 여부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전3:5)

그러나 동일한 원리에서 교회도 사실은 신자가 섬겨야 할 진짜 공동체가 아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희생하고 양보한 것으로 생색낼 수 없다.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다. 봉사는 일부러 자기 시간과 여유를 따로 떼어 내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이나 학생이 교통정리, 거리청소, 고아원 방문 하는 것들이 봉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신자의 개별 가정은 핵가족이라면 교회는 대가족에 해당된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할아버지 아래 자자손손 온 식구가 다 모인 셈이다. 교회 생활은 신자의 삶 자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들이마시며 살아야 하는 안식처다. 가정에서는 육신적, 현실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면 교회에선 영적으로 자라는 곳이다.

교회는 단순하게 일요일 극장 구경하듯 설교 듣고 사람들 만나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만 하러 오는 곳이 절대 아니다. 세상의 집이 아닌 이 땅에 미리 마련해 둔 천국의 집에 오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 희생, 양보, 봉사란 말은 교회에선 사용해선 안 되는 말들이다.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 봉사했다고 자랑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 자기 할 바를 한 것뿐이다. 자기 임무를 다한 것은 충성과 헌신이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다.(고전4:2)

하나님이 신자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모으는 것도 이곳에서 훈련하고 연습하여 다른 공동체에 적용시키라는 뜻이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연습했다. 이제 그 연습한 것을 세상에 나가 생판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교회에서 먼저 실험해 보고 훈련하라는 것이다.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나 욕심이다 싶은 기도도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먼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며,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오묘하고 세밀한지 철저하게 체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주위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는 파이프로 삼겠다는 것이지 그의 창고에 축복을 쌓아둘 정도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1/10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10:10) 이 말씀 어디에도 우리

창고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았고 대신에 하늘의 창고에 1/10조를 들이라고만 했다. 하나님이 세상만사의 주관자임을 그렇게 못 믿겠다면 한번 온전한1/10조로 시험해보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에서 부어준다고 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니 자기 창고를 크게 지어야 한다 생각하기 쉽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 아니다. 신자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었으니 주위에 나눠주라는 뜻이다.

세상의 시기를 받으라

신자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大使 Ambassador) (고후5:20)"으로 부름 받은 자다. 대사가 한 나라의 전권(全權)을 대표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신자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신자는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보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거룩하고 신비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제발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됐으면 원이 없겠다는 시샘을 받아야 한다. 직장의 상사와 부하 관계도 저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사이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당장 변화가 안 되면 흉내라도 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고개를 흔들고 신자가 교회만 벗어나면 180도로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된 셈인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많은 신자들이 오리지널 성경은 보지 않고 코드 성경을 읽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내가 쌓아 둘 양식"만 구해서 그렇다.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쌓은 후에 밖에 나가 나눠주라고 했는데도 집과 교회 안에만 쌓아 두기 때문이다. 축복과 은혜가 쌓이기만 해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서 그렇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집 문밖에도 나가 본 적이 없다.

지금 당장 있는 재산 다 털어 고와와 과부를 찾아가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다. 신자가 신자 된 참 특권이 무엇이며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고귀한 뜻을 제발 제대로 새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하고 비천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저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게으르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자가 그들을 위해 평소 때에 도와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제 스스로 알아서 다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신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지 않는가?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 먼저 된 너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저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근거가 자기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라. 하늘과 땅 위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해 주어라." 하나님의 간절한 이 호소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참 뜻이다.

필수품과 사치품

'오늘날'과 '우리에게'를 알아 봤으니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일용할(daily)의 뜻은 그 날 하루에 꼭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초대교부 중의 한 사람인 닛사의 그레고리는 이 구절을 "육체의 양식만을 위한 기도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사치나 쾌락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먹을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신자의 기도에 절대 등장할 수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 유행을 앞서가는 옷, 번쩍거리는 귀금속, 웅장한 저택,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세, 세상 사람의 인기와 존경을 차지하려는 욕심 등이다.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 치장을 위한 것들이다.

사치품과 필수품의 차이는 값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인지 아닌지, 백화점에서 파는지 시장에서 샀는지에 달렸지 않다. 없으면 당장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수품이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치품이다.

현재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대상을 한 번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라. 혹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필요해서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들의 리스트라도 솔직하게 빠짐없이 적어 보라. 그리고 반드시 그 모두를 오늘을 위해 구한 것과 내일을 위해 구한 것으로 구분해 보라. 그래서 당장 없으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것들만 남기고 다 제거해보라.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없으면 생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골라보라. 아마 한 개도 고르기 힘들 것이다.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일용할 양식조차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 예수님 당대의 의미로는 오늘날의 신자가 구태여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끼니를 완전히 굶어서 죽는 자는 드물다. 최소한 사회복지 제도와 시설이 그런대로 구비된 자유선진국가에선 그렇다.

그러니까 신자는 불쌍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실현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현실적 필요를 위한 기도는 간단하게 한 구절만 언급한 이유를 이해하겠는가?

역으로 말하면 신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은 두 가지 뿐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과 거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뜻은 다 알겠는데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 코가 석자인데 온전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다시 한 번 일용할 양식이란 관점에서 그 생각을 한 번 따져 보기로 하자.

신자들이 하루 세 번씩 식사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 또 "요즘 세상에 먹고 마시는 비용이 얼마 든다고 그러십니까? 나머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것을 위해 빌어야지요?"라고 반발할 것이다. 물론 맞다. 그러나 지금 허허 벌판에서 식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사글세 단칸방에라도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식비와 사글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은 누가 주었는가?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았는가?

오늘날 신자가 7시에 아침을 먹고 난후 간절히 "하나님 오늘 점심 끼니가 걱정입니다. 제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점심이 생기는가? 또 점심 먹고 난 후에 오늘 저녁을 제발 굶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저녁이 생겨 감사 기도하는가?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다. 말하자면 주님께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도 자신의 전부를 건 싸움이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식사기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손자 잭을 결혼시킬 때의 일이다. 결혼 전야 축하 만찬으로 많은 정치인들, 친척, 친구들이 조지아 주지사 관저에 모였다. 뷔페로 식사하기 전 대통령이 유리잔을 두드려 사람들을 식탁 주위로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아내와 저는 지금까지 멋진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즐거움을 잭과 주디 부부도 똑 같이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단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멋진 식사 기도인가? 결혼식을 앞 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 분의 평소 생각과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이다. 단 두 문장의 기도 안에 아내와 자기, 부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했다. 아내와 자기가 각자의 인간적 감정과 의지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보혈로 서로 주 안에서 연합했기에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뜻이다. 아내에게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는 것은 둘째 문제다.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자 부부에게도 자신들이 누린 기쁨을 물려주고 싶다고 기도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것은 유산같은 유무형의 재물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 그것도 오랜 세월동안 부부가 상호 섬김으로써 생기고 또 줄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기쁨이었다. 무엇보다도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그 관계를 일일이 간섭하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다.

카터는 단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통과하는 파이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손자 잭 또한 먼 훗날 자기 손자의 결혼식에 할아버지를 닮아 그 신앙유전을 물려주는 파이프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간구였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어 이처럼 식사기도라도 제대로 하는 집안은 반드시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물도 고이면 반드시 썩는다. 흐르는 물에만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창고에만 쌓아 두려 해선 썩을 수밖에 없다. 아니 아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조차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럴 때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바꾸실 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과 동록과 도적이 파먹도록 내어 주실 리도 없지 않는가?

대신에 이제부터 갖고 있는 성경의 코드를 바꾸어야 한다. 오리지널 예수님이 말씀하신 코드로 바꾸는 것만이 신자가 살고 복을 받는 길이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말꼬리만 물고 늘어져선 안 된다. 단어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믿고 완전하게 순종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여야 한다. 하루 세끼 식사 기도라도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신자의 인생에는 의와 거룩과 생명이 흘러 넘치고 먹고 마시는 필수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일개 목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보장하신 것이다.

용서는 해도 절대 잊지는 못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

예배 중에 나가버린 선교사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가 타히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 분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예배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루는 갑자기 스티븐슨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놀란 아내가 따라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 만큼은 도저히 내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초대교부 중의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 4세기경에 안디옥에서 성경을 강해 설교하며 도덕적, 영적으로 회개하길 촉구했다. 그러자 당시 그곳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 구절에 이르면 양심에 가책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이 구절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자신이 있는가?

본문이 표현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는 것보다 먼저다. 원문의 시제도 전자는 과거형이고 후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훨씬 많다.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경우의 뜻도 동일하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바치라고 했다.(마5:23,24) 이웃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린 그대로 우리도 비판 받고 헤아림 받기 때문이다.(마7:1,2)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약2:13)고까지 말했다.

사람은 그 크기는 달라도 누구나 인간관계의 상처를 갖고 있다. 신자라고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서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처는 더 크고 마음에 부담은 끝까지 남는다. 인간 사회는 어느 세대, 어느 장소에서도 서로 죄짓고 상처를 주고받는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도 틀어진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자기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와도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말도 않고 원수로 지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모두 이럴진대 과연 누가 자신 있게 이 구절대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용서는 해도 절대 잊지는 못해

나아가 문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에 국한 되지 않는다. 딴에는 가뭄에 콩 나듯이 행하는 용서마저 진정한 용서가 아닐 때가 더 많다. 남을 용서하는 태도와 내용과 방식에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먼저 찾아가 완전히 마음을 털어 놓으며 피해를 배상하고 진정으로 화해하여 이전과 같은 상태로 똑 같이 회복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상대가 먼저 빌고 찾아오길 기다리지 내가 먼저 찾아가는 법이 어지간해선 없다.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부분은 갈 데까지 가버려 현실 여건상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원수졌던 형제끼리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고 형식적으로만 화해한다.

또 별로 내키지 않지만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의무감으로만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너를 용서는 하지만 죽어도 잊지는 않을 거야"식이 된다. 나아가 상대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용서한다. 그것도 내 마음 속에 그 미운 상대가 떠오르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을 두고 용서했다고 착각한다.

특별히 신자의 경우는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씩 용서한다. 기도할 때는 회개하며 용서했다가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다시 속이 뒤집어져 미워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상대가 멀리 이사가 내 눈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든지 죽어 없어질 때까지 혼자서 용서를 반복한다. 만약 상대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먼저 가서 고개 숙이지 않아 다행이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그 사람이 안됐다는 식으로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짓는다. 그 동안 용서 못했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렇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부분이 구태여 손해배상 청구만 안 하겠다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란 단 한 번이면 족하다. 한 번 만에 용서가 안 되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용서가 아니다. 용서하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더 정확히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쌓고 있는 중일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럼 역으로 말해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가 남을 용서한 방식 그대로 하시는 것은 아닐까?

예컨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도 너를 용서는 하는데 네가 지은 죄는 죽어도 안 잊을 거야." "네가 마음속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나한테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때만 용서해주지 평소 네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없어." 거기다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횟수만큼만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다면 더더욱 큰일이지 않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나 우리가 용서한 방식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일 날 이 자리에 목사를 비롯해 아무도 앉아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만 했을까?

명령과 결과의 하나님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런 질문을 하나 해왔다.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복 주리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인가?" 예를 들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렘7:23)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해답을 해드렸는데 가장 핵심 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조건과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명령과 결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표현에는 정확한 구분이 없지만 영어로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영어로는 이 구절은 “Obey my voice, and I will be your God”이다. 문법적으로 Do 나 Don’t something 다음에 콤마(,)하고 and나 or가 오는 구문이다.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러면 (콤마 뒤에 and가 오는 경우),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or가 오는 경우) 어떻게 되리라는 명령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만약 이 구절이 조건과 상벌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If you obey my voice, then I will be your God”이다. If…., then…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늦어도 집에서 7시에는 출발해야 9시 기차를 탈 수 있으니 반드시 7시 전에 출발해”는 명령과 결과다. 9시 출발하는 기차는 항상 있다. 그 사람이 9시에 도착하든 안 하든 9시면 출발한다. ‘9시 출발’이라는 항상 예비 되어 있는 결과이긴 해도 막상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7시 전에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일 7시까지 공원에 전원이 빠짐없이 도착해야만 축구시합을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취소야.”라고 하면 조건과 상벌이다. 축구시합을 하고 안 하고는 전원이 7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행위에 달렸다.

예레미야 7:23을 조건과 상벌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사단의 종이다.” 율법을 좇아 선행을 해야만 천국을 간다는 구원관이 되어버린다.

대신에 명령과 결과로 해석해보자.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나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 품 안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으려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내 은혜와 축복은 항상 예비되어 있고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 영어로는 Obey my voice, and…의 구문으로 정확히 그 의미가 전달되지만 우리말은 그런 구분이 전혀 없다. 두 경우 다 ‘그리하면… 하리라’는 식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주기도문의 본문을 만약 조건과 상벌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아무도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 없다. 스티븐슨 선교사처럼 예배 중에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신자는 반드시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기차역에 9시까지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차가 집에까지 와서 태워가지는 않는다. 일찍 집에서 나와 기차역에 정시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

명령에 대한 오해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성경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소한 먼저, 해석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꾸만 독자 자신의 지성과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려 든다. 그분의 입장이 되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묵상하여 답을 얻어야 한다.

본문의 뜻이 예수님이 단순히 신자더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권면하는 정도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정도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말할 수 있다. 모든 선각자, 도덕 선생들이 이미 다 이야기 한 것이다. 심지어 불신자도, 그것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아니 실제로 누구나 어떤 이이게 죄를 지어 원망 들을 만한 사이가 되어 버리면 괜히 뒷골이 댕기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자꾸만 마음속에 이래선 안 되는데 라는 후회와 자책감이 파고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양심의 형태로 누구에게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볼 때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십자가란 한 마디로 하나님은 아직도 죄에 져서 용서도 제대로 못하는 신자를 조건과 상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결과의 원리로 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에 젖다 보니 명령이라면 무조건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지로 떠맡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명령하신 것인지라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된 임무처럼 오해한다. 그러다보니 즉, 그렇게 힘든 명령을 잘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보상해주리라 아니 주어야만 한다고 기대한다. 분명 잘못된 신앙인데 바로 '명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능력과 수준과 위치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일학년에게 구구셈도 안 가르치고 바로 나누기 곱하기 하라고 시킨다면 선생이 잘못이다. 틀리는 것 꼬투리 잡아 골탕 먹이고 벌주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학생의 실력을 진정으로 키우려는 선생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하라."는 군대에서도 그런 식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총기를 분해 소제해 실탄을 장전하라는 명령은 최소한 논산훈련소 신병 훈련을 마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제 갓 훈련소 입대해 머리 깎은 첫날 그런 명령을 내리면 오발사고가 나서 몇 명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다. 모든 신자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서 시키는 것이다. 믿 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핑계 중의 핑계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여느 명령과도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신자 자신의 실력이 다 갖추어졌기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님을 내주(內住)케 해주셨지 않는가? 정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 신앙의 연륜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못살 리가 없고 나아가 얼마든지 그분이 시키는 엄청난 일까지 할 수 있다.

용서하지 않는 앙갚음

영국의 오글도르프 장군이 "나는 결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웨슬레는 "당신이 앞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맞받았다.

죄를 지은 횟수와 용서하는 횟수를 일대일로 맞추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장군이라도 절대로 완벽하지는 않기에 어쩌다 남에게 큰 실수나 죄를 지어 원망 받을 사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인간도 평생 사는 동안 남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자는 없다. 똑같은 죄인끼리 용서치 않는 것은 자가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용서가 단순히 감옥 안의 죄인들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차원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어차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 누구는 벌주고 누구는 벌을 안

주기도 골치 아프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아가 예수 믿으면 남들에게 원망 들을 일도 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만큼 거룩해졌기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도 아니다.

남을 용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앙갚음을 하겠다는 뜻이다. 복수와 신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것 만으로라도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겠다는 의미다.

신자더러 남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원과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이다. 또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나님 당신이 용서해야 할 우리의 억울함과 용사 받아야 할 상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억울함과 상처와 비탄과 한숨의 의미를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씻어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성령을 부어 주겠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겉 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너희 영혼 속에 좌정한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매일매일 너희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소원하라.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되었다. 너희는 빛과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

신자가 이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거룩과 의의 모습으로 바뀔 것임을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을 걸고 보장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는 이미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얼마든지 그 명령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소원은 생기는, 그런 위치와 신분에 도달한 것을 이미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항상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라고 생각한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신자의 생각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는가? 후반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있다. 그렇다고 자신을 깨끗케 하여서 거룩하게 바뀌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 이제 그분의 복을 받는데 장애 될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반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는 이차적인 관심이거나, 복을 받는 조건으로 밖에 생각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너희가 지은 죄가 정말 네 영혼을 갉아 먹고 있고, 네 인생의 짐이 되는가? 네 모든 일들이 그 죄에 뒤엉키어 제대로 형통하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철저하게 깨닫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남을 용서하는가?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진정 죽기보다 싫어하는가? 한 쪽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기 소원하는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길 소원하는가?”

예수님 명령의 참뜻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제자들더러 실제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 것이다. 말하자면 명령한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지만 명령이란 명령권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명령 받은 자가 명령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왜곡시킬 수 없다. 명령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신자가 이 구절만 나오면 쥐구멍을 찾거나,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주님 제가 저에게 상처 주고 손해 입힌 자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서두에 말한 대로 같은 사람을 두고,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수십 번씩 용서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상대를 제대로 용서하는 기도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음번에 만나면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다음 번 기도는 당연히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었습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또 다시 범했습니다. 이 용서 못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만 계속 반복하여 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 것인가? 예수 믿고 난 이후 평생을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생각지 않고 후반부만 기도할 것인가? 성경을 반만 읽고 실천하고 나머지 반은 실천은커녕 알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인가? 예수님 명령을 우리 판단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따른다면 성경을 자기가 고쳐서 기록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예수님이 신자더러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그 순서대로의 의미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라는 것이다. 또 그 뜻을 제대로 알면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이웃과 틀어지고 죄 짓고 원수지는 것도 결국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존심과 체면 세우는 문제 때문 아닌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서로 원수진 문제만큼은 너희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는데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에 걸 맞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나아가 남을 용서하는 것 뿐 아니라 네 죄도 씻어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이제 자기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그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항상 감격이 넘치고 찬양 부르며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과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명령과 결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축복과 은혜는 항상 먼저 예비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대로 따르면 당연히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신자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때가서 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순서가 뒤바뀌는 법은 절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순서를 제대로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 않는가?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명령과 결과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이 거꾸로 알고 있기에 순서를 바로 깨우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확증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된 신자는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므로 신령한 자가 되었다.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면 남은 것은 그 명령대로 따르려는 소원뿐이다.

이전에는 남은커녕 형제와 배우자마저 원망하며 미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매일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채우길 소원해야 한다. 성령이 계시기에 더 이상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발붙이지 못하고 나를 흔들어 시험에 빠트리지 못함을 확신해야 한다.

대신에 신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 말하자면 더 이상 이 구절의 기도에 꽁무니를 뺄 필요가 없다.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제가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모든 이웃의 잘못과 상처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선행과 구제와 십일조 한 것을 자랑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사랑을 알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게 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제게 소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두 번 다시는 주님의 은혜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은총 가운데서 제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기도란 역으로 말해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전에는 긍휼을 행함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만 구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저에게서 긍휼을 거두어 가십시오." 꼭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믿음의 자세는 확고하게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도를 할 때에 비록 아직은 용서하는 중에 있는 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비굴해지지는 말아야 한다.

욕심을 채우며 살아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6:13)

한국 신자의 결정적 약점

한국 신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은혜 받은 체험이 많고, 선교와 전도에 열심인 것 등 좋은 점이 많다. 반면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이다. 읽어도 건성으로 읽고 치운다.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 하지 않는다.

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해지는 것 둘 다 뭉뚱그려서 단순하게 신자더러 죄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고 만다.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뜻이다. 벌써 단어가 다르면 그 의미가 다르다. 시험과 악은 분명히 다른 뜻이다. 또 '들게 하지 마는 것'과 '구해 주는 것'도 서로 다른 동작을 나타낸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따진다고 해서 절대 신앙이 논리적, 지성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말씀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말씀이 정말 살아 있는 말씀이 되어 역사하는 능력이 생긴다. 성경을 순전히 자기의 감(感)과 생각에 의지하여 판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부터 살펴보자. 이 말씀을 문장 자체의 뜻만 따지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거두어달라는 것과, 하나님 외의 다른 곳에서 오는 시험도 있는데 그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그럼 당장 의아한 생각이 드는 신자도 나올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1:13)라고 했다. 사단의 시험을 막아 주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마라고 있는데 시험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의 세 종류

우리말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사단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 죄악에 빠트려 멸망시킨 것 같은 시험이 그 첫 번째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우리말로 하면 '유혹'에 해당한다. 둘째 Trial은 하나님이 욥에게 온갖 불행과 고난과 질병을 허락했지만 결국은 그의 믿음을 정금 같이 변화시킨 시험으로 흔히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 말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려고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했다. 말 그대로 '시험'치는 것(Test)을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의미도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졌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하는 연단과 시험을 그만두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싫지 않는 한 그런 기도나 바람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6,7)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은 신자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

왜 시험으로 "잠간 근심"한다고 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은 궁극적으로 신자를 절대 실패하게 하거나 손해 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에 가선 반드시 신자의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 정답은 이미 밝혀져 있다. 믿음으로 큰일을 이룬 자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욥이 당한 연단과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처럼 하나님은 신자를 대할 때에 더 엄격하게 하신다.

성경은 또 분명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연단과 시험이 없다는 뜻이다. 그것을 초연해 하고 아무 것도 아닌 양 쉽게

넘어갈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 모세도 자기 인생의 2/3 인 80년을 실패자와 낙오자로 살았지 않는가?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생을 계속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 않는가?

하나님이 신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좀 쉽고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복을 좀 주시면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껏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하려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하고도 거룩한 종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

당신의 환난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성경을 진지하게 분석했다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 분석된 말씀을 심각하게 적용해 보아야만 진짜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내지 시험인가? 쉽게 판별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들에 한 번 솔직히 답해 보라.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언제나 만사형통케 해야만 하나님인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의 환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는가 모르고 계시겠는가? 알고 있다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환난을 통해 여러분을 정금 같이 변화시키며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시 이렇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 본 적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간절히 여러 번 기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알고 계시다면 가만히 모른척하시겠는가 대책을 세우고 있겠는가?

여러분의 답안지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이미 해결책이 다 예비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은 저들은 환난 가운데 분명한 해결책을 갖지 못해 향방 없는 달음질을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눈 깜짝 안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폭력마저 동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할 줄 알게 된 자다.

그럼에도 신자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 잠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잠간인지 조바심이 나서 설치니까 그렇다. 이 환난이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일 년 안에 끝나는지 빨리 일정표라도 달라는 것이다. 그 잠간을 못 참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 하고 또 하나님에게 자꾸 단축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 그 잠간이 정말 잠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신이 기도하는 열심과 정성에만 달려 있다는 투다.

다시 한 번 두 가지 질문들을 해보자. 현재 겪고 있는 환난 중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령과 거룩과 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가 아닌가? 환난과 고통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가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도 내가 정금 같이 변화되는 것을 더 소원하는가? 이 환난이 분명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과정이며 나를 더욱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임을 확신하는가 아닌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으며 그 일에 내 일생을 기꺼이 바치겠는가 아닌가?

성경의 약속을 믿는 신자라면 이미 그 정답을 알았을 것이다. 환난을 '잠간' 지나가는 것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래 감'으로 만들 것인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 않다. 신자가 그저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없으면 그 잠간이 절대 잠간으로 그치지 않는다.

시험의 실제적 근거

아직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가? 그럼 사단이 준 환난과 시험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기회에 신자가 분명히 알고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내지는 묵인 없이는 신자를 직접적으로 조종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오해는 말아야 한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신자가 방금 드렸던 그 모든 질문에 온전히 믿음에 근거를 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사단이 절대 훼방하지 못한다. 감기마저 감기 귀신의 소행이라고 몰아 부치는 어떤 이단처럼 모든 나쁜 일의 배후에, 특별히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더욱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하루 3번씩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사단이 근처에 얼씬 거리지도, 아니 얼씬은 거려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은 기쁘게 감수해야 하고 사단에게서 오는 유혹도 그리 많지 않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의 구체적 뜻은 더 명확해졌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4,15)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진다고 했다. 야고보서의 이 구절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본문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한 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더러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완전히 빼내어 달라고 해야 하는가?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게 하든지,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봉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인가? 고급 차, 좋은 집은 아무리 봐도 전혀 부럽지 않고 덤덤하게 해달라는 것인가? 아예 세상의 까마귀 노는 골 근처에는 백로가 가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표현 자체가 참 재미있다.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신자가 시험쪽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이 신자 쪽으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고의적으로 시험을 찾아가는 법은 거의 없다. '시험에 들게 하지'라는 표현이 바로 신자 입장에선 수동형이지 않는가?

바꿔 말해 시험은 항상 언제, 어디, 어떤 일에서든 있다는 것이다. 신자가 세상에 살아 있는 한 구태여 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속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느 누구나 시험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격과 신앙 실력과도 크게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데 욕심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해서 욕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무소유와 무욕심으로 살려면 절간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전부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소유를 갖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은 너무나 큰 낭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녀를 낳고 찌지고 볶으며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아야 한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멀리하려고 삶 자체를 등한히 할 수는 없다. 설령 실패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 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더더욱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또 그런 시험과 유혹 중에 오히려 신자를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 가장 먼저 경외하여야 하고, 그 한 번 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서 자연히 생기는 욕심은 그런 면에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해서 욕심과 감정을 완전히 다 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더라도 신자는 그것들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다는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추잡한 욕심으로 내 자신을 채워 세상 속에서 살찌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욕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1930년 프로펠러 단발기로 대서양을 세계 최초로 횡단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당시로선 여객선으로 수주가 걸리는 거리를 서른 몇 시간 만에 건넜으니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 파리에는 그를 환영하는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다. 한 담배회사에서 자기 회사 담배 갑을 들고 담배 한 개비만 입에 물거나 손에 끼우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찍는 조건으로 5만 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불의 가치가 되는 돈이다.

그러나 그는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라는 한 마디로 거절했다. 그 사실이 보도되자 곳곳의 신자들이 10만 불이나 되는 헌금을 보내 왔다.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5만 불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그 갑절인 10만 불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결과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는가? 시험과 유혹의 결말을 궁금해 하고 염려할 것 없다는 뜻이다. 대신 그가 어떻게 그런 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종교적 의무감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매스컴의 선전에 얼굴을 비취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헌신한 자다.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자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자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것은 영웅이 되어 인기를 얻고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편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했다. 당시로선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단독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뿐이다. 아무리 5 만 불이 대단한 액수지만 신자에게 죄악시 되는 담배 선전에 세례교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세상의 시험은 항상 그 장소에 그 크기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광고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가장 필요한 물건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가 세계적 영웅의 멋진 장식품처럼 보이게 만든다. 텔레비전을 서너 시간만 시청해 보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전부가 없으면 당장 남에게 뒤쳐지는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마치 생활이 불편해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제조업 직종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공장 자동화가 급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는 물건만으로 전 세계인이 다 쓰고도 남는다. 또 광고에 의한 충동구매로 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쓰는 물건보다 더 많을 지경이다. 남아도는 물자가 소비 위축이라는 결과까지 낳음으로써 실직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지경에선 회사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다. 광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산품뿐만 아니다. 서비스 상품들이 재미와 쾌락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고 건강에 좋다는 그럴싸한 핑계로 치장하여 텔레비전 화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아가 불신 세상에선 성경적으로 분명한 죄악마저 선한 것으로 둔갑하여 신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과연 우리의 의지력으로 욕심을 죽이려 해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욕심을 채우며 살아라

사람들은 욕심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질적으론 고급한 것을 갖기를 소원하면 욕심이라고 친다. 특별히 신자들은 물질을 보기를 돌 같이 보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신자가 벤즈 차를 타고 월수입 몇 만 불 벌면 마치 큰 죄악을 짓는 것처럼 생각한다.

욕심이란 질, 양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다. 재벌 회장이 벤즈 차를 탄다고 아무도 욕심 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갓 대학 졸업하여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버지가 부자라고 벤즈를 타는 것은 욕심이다. 자기 분수, 능력, 위치, 지위를 초과한 것이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탐내는 것이 욕심이다.

그럼 신자의 욕심은 무엇인가? 신자의 신자 된 근본적인 신분, 위치, 소속, 능력, 특권, 은혜 등을 넘어서면 욕심이다. 세례 교인이 세례 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말이다. 도덕적 잘못을 탓하는 것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참 의미를 놓치면 욕심이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면 신자 고유의 욕심을 부린 것이다.

신자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에서 열까지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그 은혜에만 의존하여 사는 자다. 평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연단과 시험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을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가 그러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고통만 없애 달라고 하면 욕심이다. 왜 이 환난이 빨리 끝나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리 고달픈 일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그저 불안하고 염려하다 못해 오직 고통만 빨리 없애려고 인간적 세속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욕심이다. 필연적으로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쾌락과 죄악을 쫓아 화끈하고 안락한 것만 찾아 가더라도 신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한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낙오자요, 앞뒤가 꽉 막힌 고리타분한 자로 비췰지라도 말이다. 그것이 세례 받은 신자의 삶이다. 신자가 벤즈를 타고 월수입 백만 불을 번다고 욕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며 그 돈 버는 과정에도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풍부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천만 불, 일억 불을 벌어도 욕심이 아니다. 그러나 단 돈 5불, 10불이라도 세상의 부정과 부패의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검은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자 된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결코 잊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와 긍휼 안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주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비록 내 연약한 심성과 육신이 세상의 교묘하고 치사한 속임 수에 당할 때도 간혹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세례 받은 교인임을 되풀이해서, 비록 하루에도 수십 번이 될지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지 않았는가?

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바로 그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 버린다. 신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산다면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연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 신령하고도 성숙한 자녀로 변화되어 당신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신자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 종교적 책임감으로 유혹과 싸워 한두 번 이겼다고 신령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의 더러운 욕심은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욕심으로 내 생각과 영혼에 가득 채워야 한다. 생각을 바꾸어야 삶이 바뀌며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 시험을 이긴다고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해 내 삶의 완전하고도 선한 정답을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갖고 계시며 또 그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언제 어디서나 확신할 수 있어야만 시험에 들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외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 어쩌면 그런 묵상조차 안 되어서 아예 구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자가 우리 중에 아주 많을지도 모른다.

김정일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6:13)

기복 신앙에 대한 오해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신앙 행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기복(祈福) 신앙이다. 교회에 와서 그저 일신상 안락과 현실적 형통과 물질적 풍요만 간구한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간구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한 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증거를 하나 들어보자. 주기도문의 12절의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과 13절 전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13절 후반의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의 의미를 각각 구별해서 따져본 적이 있는가? 전부 그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진짜 본심은, 아니라면 그 일부라도 차지하는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도 하나 더 해 주시겠지, 아니면 최소한 불의의 큰 사고는 막아 주시겠지 아닌가? 따지고 보면 기복 신앙과 다를 것이 거의 없지 않는가?

기복신앙이 직접적으로 복을 빌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지 않다. 또 자기 복만 빌지 않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해서 기복 신앙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내 쪽의 필요와 생각만이 우선이라면 사실상 기복 신앙이다.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열정이 먼저 있어야만 한다.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마6:32)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아지기에 자연히 기복 신앙이 된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을 빌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빌려면 당당하게 빌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도를 괜히 고상하게 치장할 필요 없으며 이웃에 대한 중보를 사족처럼 달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있는 그대로 우리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아야 한다. 대신에 돈을 벌고 쓰는 부분에 신자 나름의 정당하고도 절실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도자의 확신도 함께 드려져야 한다.

세 가지 죄악

이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세 가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예수님은 왜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해놓고, 또 다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는가?

간혹 이 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12절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측면이고, 13절 전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죄가 오는 것을 막아 달라는 소극적 방어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13절 후반의 악에서 구하는 것은 현재 죄 속에 빠져 있는 신자를 건져주는 적극적 공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며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동일한 한 신자가 과거에 지은 죄(12절), 현재 짓고 있는 죄(13절 후반), 미래에 지을 죄(13절 전반)를 용서해달라는 너무나 간단한 의미밖에 안 된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주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길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스스로 성부께 화목제물이 되어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롬3:25)하게끔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사해주신 모든 죄에는 신자 한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된다.

그런데 이 짧은 주기도문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내용이 이미 구원 얻은 신자더러 시차적으로 죄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라는 것이라면 복음을 설명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 신자가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만 하면 너무 가난하고도 윤리적인 신앙에 불과해지지 않겠는가?

신자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회개하려면 항상 죄만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하면 또 다른 멍에를 매게 되지 복음이 복음으로서 가치를 갖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는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태여 주님이 따로 안 가르쳐도 된다.

이 세 구절은 신자가 짓는 윤리적 죄의 시차적 구분이 아니다.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죄를 말한다. 12절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죄다. 신자가 구원을 얻은 후에도 알게 모르게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 때마다 입술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회개해야 한다.

13절 전반의 시험은 신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유혹이 내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과 합쳐지는 것이다. 자꾸 신자 된 신분과 자격과 권세를 잊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죄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악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Evil(악)이다. 죄(sin), 범죄(crime), 혹은 유혹(temptation)과는 다르다. 신자가 윤리적 죄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거대한 영적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 힘에 우리 죄의 본성이 넘어가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디카우 포로 수용소

어떤 책에서 한 나이 든 미국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된 경위를 간증한 것을 읽었다. 이 분은 이차 대전에 사병으로 참전했었는데 전쟁말기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에 악명 높은 디카우 포로수용소를 접수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화물차 한 칸의 청소를 맡았는데 그 속에는 독개스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겨갈 유대인들의 벌거벗은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독일인은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치밀한 민족이라 시체를 벽돌 쌓듯이 너무나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머리와 다리를 서로 하나씩 엇갈리게 쌓은 데다 덩치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번갈아 쌓아 정말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이 간혹 나왔다. 체력이 특별히 강해 독가스에 중독만 되었지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다. 본인으로선 더 끔찍한 화장장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아무 의식도 없이 죽은 듯 누워 있지만 분명히 숨은 헐떡이고 살아 있다는 표시로 몸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시체를 치우는 동안 동료 병사는 구역질을 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반해, 그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손 따로, 정신 따로 움직였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도 못할 만큼 자기 머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었다. 연민, 분노, 수치, 혐오, 두려움 등 더럽고 추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인 채 자기를 온전히 묶고 있어서 시체 썩는 냄새도 못 맡고 사람 시체가 시체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독일군이 저지른 잔인한 범행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넘어선 알 수 없는 어떤 정체에 대한 분노였다. 인간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까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는 그 화물차의 유대인 시체를 치우면서 이런 절대적 악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과 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인간의 윤리적 죄 몇 가지 회개하고 고친다고 해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차적인 소명을 받은 셈이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독일군 친위대 포로 12명을 디카우 수용소에서 조금 떨어진 미군 막사로 호송해야 할 일이 생겨 경비군인을 차출했는데 '척'이란 자가 자원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군대 들어오기 전에 시카고의 알카포네 밑에서 일했던 마피아로 군대 안에서도 흉포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역에도 참가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 일에 자원하고 나선 것이었다.

차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군 막사로 가는 숲을 통과할 즈음에 갑자기 요란한 기관단총 소리가 났고 곧바로 '척'이 돌아 왔다. 포로들이 도망가려 해서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그래도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 전쟁 중이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 목사님이 절대적 악과 평생을 바쳐 싸워야지 결심하자마자 바로 자기 동료가 그 절대적 악에게 완전히 조롱당했던 것이다. 겉모습만 달랐지 독일군과 동일한 절대적 악을 저지르는 꼴을 목격한 것이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악의 세력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만약 자기가 호송 책임자였더라도 '척'처럼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못했을

것이라는 데 있었다. 자기도 얼마든지 그 악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 인간적 정의감에 사로잡혀 단단히 결심한 것조차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악은 인간의 의지, 지성, 교양, 도덕성, 종교성, 영성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제 3의 파워가 이 땅을 뒤덮고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 속에도 꿰차고 들어와 있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다. 독일군에게만 있어야 할 야수적 본능이 자기에게도 똑 같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인류 전체가 이 더러운 세력의 노리개 감이 되어 불쌍하고 처참한 지경에 빠진 희생자다. 독일군이 악마가 아니요, 미군이 천사도 아니다. 다 같이 죄악에 눌리고 암흑에 묶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삯은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끊어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9.11 테러 이후 미국 교회마다 신자가 늘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불시에 죽을 수 있다. 인간 생명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 불안감을 달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려고 교회로 모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전부 그날 아침 Twin Tower가 무너져 내리고 맨하탄 섬 전체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목사님이 디카우에서 느꼈던 것과 동일하지 않았던가? 처음에는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은 희생자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곧 바로 그 테러범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치밀었고, 마지막에는 그 광경을 계속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시커먼 악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지 않는가?

어떤 사진사가 찍은 사진에 그 검은 연기구름 속에 사단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가 한 때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사진에 찍히고 안 찍히고 간에 분명히 그 뒤에서 사단이 음흉하고도 조롱하는 비웃음을 웃고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 알카에다나 오사마 빈라덴이나 이슬람이나 모두 그 악의 불쌍한 희생자일 뿐이다.

우리 모두 그날 아침 도대체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통분해 했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최소한 저래선 안 된다는 뜻이지 않는가?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모습과 서있어야 할 자리가 도대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취해야 할 모습과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이들 또한 방황하고 갈급해 있었다.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도 출석해 보지만 여전하다. 다들 사단이 인간에게 덮어씌운 원죄의 멍에 아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을 보라. 수백 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는 매일 황제나 먹을 만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에 안 차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그가 얼마나 갈 데까지 갔는가 하면 음식은 맛은 셋째, 향기가 둘째, 모양이 첫째라고 한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보내 준 식량을 나눌 때 인민은 굶더라도 군대는 절대 굶겨선 안 된다고 명령한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김정일만이 문제가 아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놈은 그냥 미친놈으로 치면 된다. 더 문제는 같은 동포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도 누가 봐도 죄악이 분명한 짓을 말리지도 않고 독재자에게 빌붙어 스스로 앞장서서 살인하고 호위호식 하려는 수십만의 특권층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굶어 죽는 형제들의 시체에서 단물을 빨아 먹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은 약과다. 지금 남한의 돌아가는 꼴을 보라. 수십억, 수백억을 꿀꺽하고도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나서는 자가 없다.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똑같다. 감옥에 가 있는 구정권의 한 실세는 손님을 만나 점심을 먹으러 매주 신라 호텔에 두세 번씩 가는데 매번 일인당 30만원 하는 식사를 주문했다고 호텔 종업원이 증언했다. 한 번 식사에 보통 2백만 원씩 지불한 셈이 된다. 김정일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하나도 덜하지 않다.

또 죄송하지만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이놈도 미친놈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이런 자에게서 떨어지는 떡 고물이라도 집어 먹으려고 식사 값을 대신 지불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온갖 연줄로 엮어진 죄악의 고리는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규모와 숫자는 이쪽이 훨씬 더 크고 세밀하다. 북한의 죄는 아직 순진하고 무식한 수준에 있다면 남한의 그것은 더 치사하고

교묘하고 더럽다. 더 배우고 더 가진 사람들이 죄는 더 짓는다.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나 모르는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전 국민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한국이 5천년 역사상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고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잘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죄로 썩어들어가는 냄새는 가장 심하다.

기도의 완성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면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다. 윤리란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미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본문은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내용으로는 마지막이다. 첫 인사와 마침 말을 뺀 실질적 기도의 종착점이다. 그럼 신자가 기도해야 할 목표요 기도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할 기도다. 세상의 절대적인 악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악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이 이겨내야만 할 뿐 아니라 그 악을 쳐부수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단의 머리부터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한다.

하나님은 경배 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사단에 몽땅 넘어가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요, 형제를 살인한 가인의 후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실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서 불 못에 가야만 지옥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밖에 구할 줄 모른다. 또 그래서 그들 사이엔 시기 분노 저주 쟁투가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현재 이 땅이 바로 그들에게 지옥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인간이 참 인간다워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방황을 멈추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진다. 악의 세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권세 앞으로 절대 못 가도록 막는다. 그

더러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신자가 싸울 싸움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고 열심히 해서 내 문제 해결 받고 내 식구가 형통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의 일종일 뿐이다. 이 땅을 볼모로 삼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김정일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미국 목사를 인터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그에게 했다. "그런 절대적인 악과 싸우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며 어려운 사람들 몇을 상담해 준다고 그 악이 없어지겠는가? 지금 목사님은 그 악을 없애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그 목사님은 "악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악이 준동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왜곡된 정서로 인해 제대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방황하고 있었던 히틀러의 청년 시절에 누군가 그를 붙들고 제대로 상담하고 충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 사람의 미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스실로 간 육백만의 유대인과 수천만의 이차대전 희생자들이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비유컨대 만약 김정일 혼자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북한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뜻이다.

앞으로 이 땅에는 악(Evil)이 갈수록 더 설칠 것이다. 지구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이 있다. 과학적으로 봐도 수명이 다 된 별들을 블랙홀이 집어 삼킨다. 태양도 언젠가는 식게 마련이다. 금주에 태양 표면에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 가장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한다.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운명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자기들의 마지막 때를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끝이 다가오면 더 설칠 것이다. 절대 디카우 수용소나 9.11테러가 끝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누구를 이 땅에 보냈는가? 아무 이름과 빛도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신자들이다. 무엇을 들려서 보냈는가? 오직 기도라는 무기 하나 달랑 들려

보냈다.

본문의 표현을 보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다. ‘다만’ 즉, 오직 혹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사단에게서 인간을 구하는 일로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이었다. 사단의 세력은 기도 외에는 인간에게서 떨어나가지 않는다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었지 않는가?

그 다만 하나의 무기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악에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문이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로 세상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신자의 기도만이 이 세상을 악에서 구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일 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 번 둘러보라. 신자만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오히려 끝없이 계속되는 방황과 공허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만큼 비참한 자가 없다. 그들은 곡예사가 줄 타는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한탕 대박을 터뜨리느냐, 아니면 감옥에 가느냐의 줄타기가 아니다. 자기의 전 인생, 전 존재, 영원한 운명을 사단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에게 맡기느냐 천길 벼랑 위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 한 쪽은 영생이요 다른 한 쪽은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나 사실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다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 향방 없는 달음박질을 하고 있고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 히틀러, 김정일, 오사마 빈라덴보다 특별히 더 악하거나 덜 악한 것도 아니다. 악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크기만 불신자들마다 다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 중에서 평소 무심하게 대했거나,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주기 귀찮아서 외면하는 바람에 히틀러 같은 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가 악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결코 없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돈만 벌다 보니 자녀는 마약과 갱들에게 사로 잡혀버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바로 신자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독일군이나, 미군 '척' 병사나, 절대적 악의 존재를 발견하고 목사가 된 분이나, 우리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똑같이 처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정말 멀쩡히 상식과 교양과 인격을 갖추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의 사는 모습에도 예수를 모른다면 진정한 생명과 의는 없다. 잘해야 남에게 피해 안 주며 사는 정도다. 절대적 악과 싸우기는커녕 그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인줄 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예 전설과 동화로 치부해 버린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에는 사단만 설친다는 것이다. 아니 사단이 이미 사냥을 끝냈기에 하나님의 빛과 냄새라고는 그곳에 없다.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 세상의 학문,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종교 그 어느 것도 이 절대적 악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그렇다.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신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신자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수록 더욱 사단이 악랄하게 우리에게 덤빌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이루셨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또 주위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매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신자가 할 바가 아니다. 자식 또한 스스로 악과 맞서 싸우게끔 해야 한다. 신자의 자녀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 악을 물리치는 일에 직접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 믿는 일은 부모가 대신해 주고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나 잘 시켜 일류대학 보내라고 교회로 불러 모으지 않았다. 아직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속마음으로는 반쯤 부러워하면서 주기도문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는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아무리 형통해도 그럴수록 그만큼 더 불쌍해진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고속급행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그런 자들을 뒤에서 교묘히 조종하고 있는 악을 쳐부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여 이 세상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기도 걱정 꾼들(Prayer Worriers)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13)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

본문이 주기도문의 여타 부분과 좀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말씀이 괄호로 둘러 싸여 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아주 드물게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이 표시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원본에 없는 말씀을 추가해 넣었다는 의미다.

후대 사람들이 임의로 성경을 조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은 없어지고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筆寫本)만 남아 있다. 괄호로 표기한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믿을만한 사본에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괄호 부분을 포함하는 사본이 원본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이 원문의 뜻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첨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첨가한 것이 거의 확실한 데도 내용적으로 앞뒤 문맥에 완전히 일치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전체 뜻을 더 살려 주므로 그대로 두되 괄호로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34:16)고 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 저작, 수집, 보관, 계승하는 일에서부터 번역하는 전 과정에 성령이 간섭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2, 3천년 후의 오늘 날의 신자가 읽고 묵상하는 중에도 성령은 역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 사사로이 풀어선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지 않으면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도덕교과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효과가 빠른 수면제가 될 뿐이다.

비록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 마치 참고해야 할 각주(脚註)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해준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가장 일차적인 의미로 기도는 경배로 시작하여 간구하는 내용을 아뢴 후에 찬양으로 마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구절이 추가된 이유를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송영(Doxology)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문도 기도로서 완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덧 붙였다고 해석한다.

하나님 왜 숨으시나이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쳤는가? 시편 10편으로 가보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1절) 솔직히 우리가 어쩌다 기도하는 그 심정과 너무나 같지 않은가? 특별 작정 새벽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이유다. 그러나 끝나는 모습을 보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17,18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쳤다.

하나만 더 살펴보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시13:1) 염려와 불안을 안고 기도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5,6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다. 둘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시편이 거의 그러하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처럼 기도의 형식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잠시 2-3분 기도하는 그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서인가? 기도한대로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이 다 되면 신자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를 가진 마술사이고, 하나님은 도깨비이거나 램프 속에 있는 거인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기도를 간절히 하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위로, 용기, 소망,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란 엄밀히 말해 하나님더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가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이 몽땅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겪는 문제와 고통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자는 궁극적으로 신자 자신이다.

다른 말로 기도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 이뤄지는 응답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신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소망을 더 견고케 해주는 모습이 훨씬 많다.

또 다른 오해는 말아야 한다.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슬픔과 염려와 불안이 싹 가시고 속에서 기쁨이 퐁퐁 솟아나거나,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구름 위를 걸어가듯 종교적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끔 신자가 너무 낙심하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병이 나 큰일 날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

그럼 기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많이 알아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그 분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섭리의 원리와, '나'라는 존재와 인생에 대해 그분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얻게 되는 영적 충만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사랑 받는 자녀의 자리에 다시 든든하게 서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침 삼키는 순간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들어오고 나감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기도의 참 응답이다. 나아가 나의 들어오고 나감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착착 잘 이뤄지고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키워나가는 작업이 기도다. 지금은 몰라도 장차 반드시 그대로 어김없이 이뤄진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는 일이다.

기도 걱정 꾼들(Prayer Worriers)

어떤 미국 선교사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기도의 용사들에게(My Dear Prayer Warriors)'라고 해야 할 것을 용사라는 단어에서 'a' 대신에 'o'를 쳤다. 그 뜻이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기도의 걱정 꾼들에게(My Dear Prayer Worriers)'로 변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떤 기분이 되는가? "이젠 기도로 다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인가? 아무리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해도 실제로 골리앗과 싸운 것은 다윗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고 다윗은 그것을 믿고 천하무적 골리앗 앞에 생명을 걸고 물매 돌 다섯 개를 들고 나갔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것들이 얼마나 허상과 거짓투성이며, 신자들 앞에 허장성세로 큰소리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서 절대 그 허수아비 같은 세력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를 알고 그 능력을 믿어 하나님에게 이제 그 거짓의 세력과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겠다는 출정보고를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단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 달라는 부탁으로 그쳐선 안 된다.

또 "어휴! 그 동안 계속 눌렸는데 기도했더니 이젠 좀 살 것 같네"같은 기분으로 기도를 마치는가? 기도란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일시적으로 감정의 위로만 받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다윗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밤새 고민하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온갖 궁리를 다해 봤지만 결국은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는 부인하려야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다니엘은 힛데갈 강가에서 세 이레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단10:11)라는 음성을 들었다.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밤새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도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축복인가? 그는 이미 부자가 될 대로 되었다. 내일 이 강을 넘어 고향 땅에 들어가면 형이 나를 당장 죽일 것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확답을 달라고 졸라댄 것이다. 기도란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울고 또 울어야 한다. 주께 진정으로 겸비하게 엎드리면 천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 장엄한 천국의 장면을 환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와 내 인생을 향하신 인도와 보호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며 소름이 끼치도록 정미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울어야 하는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면 더 이상 그 문제와 고통에 대해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사라져야 한다. 억지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내 마음에 드리우고 있던 근심의 구름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분의 충만으로 대신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도하고도 불안하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넋두리나 타령을 한 것이다. 아니면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신자의 기도 중에 가장 문제는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가 없어지지 않고 더 불안해지는 경우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생각해 보니 더 크게 보인다. 자기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있다는 증거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교회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특별 작정 40일 새벽 기도에 참가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솔직히 살펴보라. 30일이 지나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응답이 될 때가 되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39일쯤 되면 이제 겨우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군대 제대를 앞둔 병사처럼 날짜를 꼽아 가며 기도한다. 마치 자기가 40일을 채우는 그 정성과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대한다. 정작 하나님 그분의 뜻과 약속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세상에서 형통만 빌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뤄질 기미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만 키운다. 그 문제가 주는 현실적 고통에다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지나 않는지 하는 영적인 불안마저 보태져 걱정이 두 배가 된다.

드디어 40일 째 새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혹시나 하고 참석했더니 또 역시나로 끝나는군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만 키운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에게 내 고민, 불만, 문제 다 말씀 드렸으니 알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정 힘들면 꼭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더 이상 곪아 터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년에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로 끝낸다. 그러나 또 다른 속마음은 40일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했으니 그 정성을

봐서라도 내년 까지는 해결해 주시겠지 은근히 기대한다.

그럼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닐는지? “나중에 보자는 사람치고 겁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내년까지도 해결 안 해주어야 그나마 내년 새벽기도에 나올 테니 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너에게 더 낫지 않겠니. 나는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 내년에 또 다시 보자.”

기도란 초조한 걱정거리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염려를 좀 더 심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작업이 아니다. 기도는 걱정꾼, 염려꾼, 불평불만꾼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의지와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 용기, 소망, 비전, 믿음의 약속들로 채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솟아나며 나의 전 존재와 전 일생을 걸고 그 분의 의로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생긴다.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전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통치에 내어드리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도다.

가사를 고쳐야 할 가스펠 송

기도를 시작할 때는 시편 기자들처럼 온갖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갖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일단 하면 야곱처럼 복을 받지 않고선 절대 기도를 중지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 기도를 마칠 때는 다니엘이 들었던 음성을 우리도 똑 같이 들어야 한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크게 입은 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끝낸 후에는 다윗처럼 여호와 만이 나의 목자임을 확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스스로 담대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 데 왜 염려하십니까”라는 복음송을 다 잘 알 것이다. 이제 그 가사에 두 구절 정도는 더 부쳐야 하지 않겠나 싶다. ‘기도하고선 왜 염려하십니까?’와 “기도하고선 왜 가만히

있습니까?"를 말이다.

본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후에 걱정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섭리되고 통치되는 영역이 이 땅에 미치지 않은 구석은 단 하나도 없다. 내 상처와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환난 위에도, 심지어 앞날을 가로 막는 어떤 방해 세력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분의 권세도 영원하다. 아무리 내 인생이 고달프게 넘어져 있고 이 땅 또한 굽어지고 헝클어져 더럽고 추한 악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생명력이 넘치게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비록 사방팔방으로 벽이 막혀 도저히 더 이상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실패와 절망을 안고 눈물을 뿌리며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받쳐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만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신자가 일대일로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확장된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리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분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 세상의 어떤 세력과 존재가 그것을 조종, 변경, 왜곡, 취소시킬 수는 절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절망케 하거나 실패케 할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도

어떤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자 한 남루한 차림의 청년이 나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에 방탕했던 내 죄의 무게를 제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날이 바로 교회에 처음 나온 날이었다.

그 청년은 지난 8년 간 가출해 부모와도 연락을 끊고 술, 마약, 도박, 섹스 온갖 죄악에 찌들어 방황했던 자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일어난 변화에 대해 너무 감사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다 편지로 그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자기 엄마에게서 온 답장에는 “네가 그 주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주님 제발 방황하는 제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늘나라에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당연하지만 신자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더욱 영원하다. 비록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간 스쳐 지나가며 우리 육신은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세상은 모순과 갈등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이 땅에서 더 영원해야 하지 않는가?

또 신자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도는 이 찰나 같고 당장 쓰러 무너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 통치 영역 안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추하고 더러우며 결점과 허점투성이라 매일 실수하고 또 쓰러지지만 기도가 있기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을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것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통로를 거쳐 천국 보좌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완전함이 신자에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게 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게 한다. 신자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할 필요도 없다. 신자란 한 마디로 기도하는 자다. 혹시라도 다른 어떤 종교행위로 그 표현이 대체된다면 그는 종교가일지 몰라도 신자는 아니다.

물론 신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신자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법은 없다. 꼭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당장에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기도하지 않고 없어지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는가?

그 청년의 아버지는 영원을 향해 떠나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아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쏟아 부어졌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 아버지의 기도는 영원에서 순간으로 잇는 연결 고리였다. 아들의 찰나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울다가 웃는 신자

신자란 울다가도 웃을 줄 아는 자다. 여전히 현실의 삶은 첩첩 산중에서 힘들게 헤매고 있지만 그 속에 한 가닥 빛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빛을 붙들었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마칠 줄 아는 자다.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또 웃으면서도 울 줄 아는 자가 신자다. 기도한 후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그 빛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사61:3)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기쁨이 너무나 소중해 절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불신자는 다르다. 절대로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할 줄 모른다. 너무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경우 말고는 없다. 그들은 돈이 없으면 울고 또 돈이 생기면 웃을 뿐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밖에 생각 못한다. 참 신자라면 저들에게 살짝 맛이 간 것처럼 보여야 한다. 도대체 웃을 수 없고 울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웃고, 또 크게 웃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 맞다.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만큼 부요한 자 없으며 가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신자다. 특별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는 신자만의,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만의 몫이다.

현재 불안, 슬픔, 고통, 죄악에 찌들려 있는가?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없는가?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기도 걱정꾼(Prayer Worriers)으로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그랬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무릎 꿇는 자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하면 중간에 멈추지 말라. 한 번에 기도원에 올라가 몇 날 며칠 철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끝까지 웃음이 나올 때까지 쉬지 말고 일하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기도의 용사(Prayer Warriors)로 바꿔 주신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사족(?)

본문은 언뜻 보면 꼭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데도 필요 없는 잔소리 같이 붙어 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 후에는 그 배운 것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격려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른 순서다. 아이들에게 구구셈을 가르치면 물건 살 때 단가에다 개수를 곱하면 지불할 금액이 나오니까 활용해보라고 추가로 가르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9-13절까지 주님은 신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본문에선 가르친 대로 일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식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문제를 언급해야 맞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 대신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도란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막상 기도를 안 하면 그만이다. 반면에 아무리 그런 공부를 안 해도 일단 가난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은 기도의 실천 방안 대신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따로 있었다. 주기도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본문이 주기도문의 결론 격이라는 의미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시 강조하기 원하셨다. 바로 신자가 기도할 내용과 기도할 때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뜻이다.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세상과 교회 생활을 따로 구분해서 살지 않는 한 신자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이뤄내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간주하고 있는가?

죽음 직전과 직후

용서가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니까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지금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섰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겠는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인가? 권력을 마음껏 누려 보지 못한 것일까? 자기 이름을 크게 날려 보지 못한 것일까?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보지 못하고 경치 좋은 곳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일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평생 동안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뼈 빠지게 노력하며 달성해보려 했던 목표들 그 어느 하나도 별로 아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래봐야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 때가서 문제되는 것은 오직 죄뿐이다. 지난 세월 동안에 저지른 모든 실패, 과오, 범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위에 진정으로 선한 의미와 의로운 가치가 있는 일을, 세상에서 화려하고 큰 업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한, 해보지 못한 후회만 남는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지내며 용서하지 못한 것이 가장 괴롭다. 이 땅에 남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부담과 영혼의 멍에를 메어놓고 떠난다는 것만큼 끝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은 한 대학교수가 있었는데 그 생의 마지막 기간을 그 동안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매일 한 사람씩 초대해 식사하며 화해하고 용서했다고 한다.

아직 젊어서 죽을 때가 되어보지 못해 여전히 용서가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기 주위에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등 누구라도 아주 가까웠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전에 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아닌가?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아내, 남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그들을 더 포용하고 먼저 양보하며 끝까지 참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반드시 호의호식으로 호강 시켜주지 못했던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정말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더 괴롭다.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해 품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애정, 연민, 동정, 미련이든지 아니면 분노, 시기, 질투, 증오였던지 간에, 완전히 털어내어 서로 간의 오해나 상처를 씻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안은 채 떠나보낸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다. 이미 후회해도 늦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비탄은 더더욱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떠나는 사람에게도 똑같다. 또 죽음 직전의 떠나는 사람에게나 죽음 직후에 떠나보낸 사람 모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이 말이다.

기도의 새로운 정의(Definition)

예수님은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지금까지 누군가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과 다르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잘못 가르친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이 드린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18:11,12)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추어내는 기도를 했다. 자기의 의만 강조해 죄인인 세리와의 차별 대우를 요구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니까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간구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제 기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제가 잘 믿었지 않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불신자인 저 죄인보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믿는 자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직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며 대신에 저 불신자는 저렇게 형통합니까?" 수많은 신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의아심이며 불만이지 않는가?

본문은 주기도문의 사족(蛇足)이 아니라 결론이다. 기도의 정의(Definition)를 바꾼 말씀이다. 기도란 우리의 계획과 뜻을 하늘나라에서 전능한 힘으로 성취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맨 먼저 강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해선 안 된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용서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만 완성된다.

신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사회와 민족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바꾸고 더욱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일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단 한 치의 가식, 위선, 사기, 숨김, 강요가 개입되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어지길 소원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용서의 본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더러 상대의 허물을 고치고 바뀌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여 상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도록 해달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정말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간구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따져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는가?

우리는 용서라고 하면 자꾸 상대가 용서할 만한 상태로 변화되고 사랑할만한 조건을 달라고 한다. 최소한 서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상대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라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나의 감정과 생각이 따라 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려고 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천신만고의 노력과 수많은 망설임 끝에 어쩌다 죽기보다 싫은 결심을 하고 용서해보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평생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몇 번 못한다. 여전히 죽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다.

용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상대가 나에게 끼친 손해, 잘못, 상처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좋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훨씬 나중 문제다. 우리 모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할 이 근본 시작은 하지 않고 용서가 생긴 후에 일어나는 결과부터 먼저 하려니까 용서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먼저 일어나야 찾아가서 상대와 화해가 되지 상대와 화해를 먼저 한다고 자기 마음에까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해 놓은 상대에 대한 어떤 기준, 예상, 기대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제로의 상태에서 상대를 다시 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상대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다. 아직 상대가 변한 것 하나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따로 생긴 것도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어떤 기준과 기대치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인간적, 의지적, 윤리적, 종교적 용서를 해도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 하나 없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모든 인생이 서로 제 잘났다고 자랑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다.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쪽에 결점, 허물, 잘못과 책임은 하나 없고 몽땅 사람, 세상, 주위 여건 탓이라는 변명이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 없다고 핑계된다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또 누가 많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속담을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하면 공원묘지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수많은 인생 중에 슬프고 애절하며 고달프지 않았던 자 또한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재벌 회장이든 구멍가게 주인이든, 배운 것이 많든 일자 무식꾼이든, 인물과 체격이 좋았든 나빴든 모두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삶을 살게 마련이다.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름살지고 구부러진 흔적들을 남기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증오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인생에는 문제투성이다. 설령 살아생전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는 제삼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둡고 침침한 영혼의 묶임과 눌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가족 묘지에 묻혔거나 국립묘지에 수많은 훈장을 달고 누웠다고 해서 따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다. 인간끼리 누가 더 잘났고, 더 똑똑했고, 더 착했다는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또 모든 인간의 죽음 위에는 후회와 아쉬움과 자기의 실패에 대한 핑계뿐이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대로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가련한 인생을 살다 간 것뿐이다. 핑계가 많다는 것은 물론 그 속에 잘못과 죄악이 분명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남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각자 특유의 온갖 아쉬운 사연과 이유와 억울한 사정들도 숨겨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과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의 길이가 제각기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 번 물어보자. 지금까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 적이 많았는가? 시기, 질투, 미워한 적이 많았는가?

혹시라도 나는 특별히 남과 원수질 만한 일을 별로 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라. 나로 인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많은가 나쁜 영향력을 끼친 적이 많은가? 상대를 시험하고 유혹해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뜻이 아니다. 지나고 나니 그 때 내가 좀 더 따뜻한 말로 대할 수 있었는데, 목소리의 톤을 한 칸만 낮추었더라면, 눈만 흘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뜻이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나 친구들끼리 말이다.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기억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쳤지만 나의 그런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내 아내, 남편, 자식이 느꼈을

실망감, 열등감, 모멸감, 수치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는가? 또 그것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제대로 씻음 받지 못해 마음 속 깊이 견고한 진이 되어 평생을 괴롭히는 응어리로 지금도 남아 있는지, 나아가 그 인생을 실패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추측이라도 해 보았는가?

물론 우리가 상처를 준 것도 많지만 우리 또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으며 아직 다 청산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주름살로 남아 있기도 하다. 어쨌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하다 맞지 않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상부터 먼저 찌푸렸기 때문이다.

병이 나으면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바바리아 지방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헤젤바우러란 사람이 중병에 걸려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목사님이 와보니 병실에서 간절히 그가 기도드리고 있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무엇을 기도드렸는지 물었더니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본문처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전부 용서하는 기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더니 딱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다 용서했다고 대답했다.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전부 다 용서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목사님이 권하시니까 그 원수도 용서하겠지만 대신에 내 병이 다시 낫게 되면 없었던 일로 치자고 했다. 자기가 정해 놓은 규율과 기준을 이 땅에 있는 한 죽을 때까지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인생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괴로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천하의 성자라도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도 완벽한 도덕 선생과 3년간이나 함께 생활하며 훈련 받았음에도 스승이 돌아가기 전날 밤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지 자리다툼을 했다. 또 자기들 중에 누가 배반자일지 서로 의심하고 있었다. 인간은 누가 착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은지 구분지울 수 없다. 특별히 누구만 용서 받아야 할 자라든가, 특정인이 더 나빠 용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우리 모두 허물투성이요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연약하다.

이 문제는 철학적,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잠간만 생각해 봐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별히 이곳 교민 사회를 보라.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며 구구절절 눈물겨운 사연이 없는 자 하나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민 사회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이 많은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 많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시련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전부 깨끗케 해주는 대신에 예수님더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를 변화시켜 용서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춰 놓고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고 짝 사랑 해서 무조건 용서하셨는가?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 증오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진노의 형벌을 골고다에 쏟아 부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을 포기했다. 선행과 공적으로 인한 인간 쪽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다.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받으실 계획은 아예 갖고 있지 않으셨다. 우리의 체질이 너무나 연약하고 진토인 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신자가 해야 할 기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신자가 해야 할 기도를 좀 더 윤리적으로 고급하고, 영적으로 더 신령한 차원으로 높이신 것이 아니다. 기도의 본질을 바꾸신 것이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셨다. 우리더러 신자가 꼭 해야 할 기도,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 신자에게 참되고도 올바른 기도를 할 책임을 맡기셨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서로 상처주고 받으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제 신자더러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신자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 그 무덤에서조차 핑계거리를 엉뚱한 데서 찾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자기 실패의 변명거리로 삼는다.

아무리 남과 세상을 핑계 삼아도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신자는 달라야 한다. 내가 정해 놓은 틀과 규격을 버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살려야 한다. 그래야 신자 자신도 산다.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를 버려 상대의 허물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상대를 포기하고 방임하고 상대가 제멋대로 해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 모두를 완전히 버려서 제로의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쪽에서 진정으로 남에게 줄 것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무나 짧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만은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따라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다. 서두에서 죽을 때에 남을 용서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남는다고 한 바로 그 이유다.

그럼 다시 우리 모두에게 자문해 보자.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규정과 틀을 완전히 내려놓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있는가? 정말 우리 속을 완전히 까뒤집어 보았을 때에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 교회 성도들에게 조차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신다. 매일 매 순간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신자인데 왜 남에게는 그렇게 못하는가?

기도가 내 소원을 열심히 빌어 형통을 이뤄내는 작업이 결코 아니다. 매일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교만하며 알량한 기준과 잣대를 버려나가는 싸움이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모시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상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